사회(자원)봉사 소감문

2025년도 가을학기 소감문

○ 서울대학교 정 ○ 연

대학 강의실에서 배우는 법학이 잘 정돈된 논리의 탑이라면, 현실 속의 법은 수많은 이해관계와 가치가 충돌하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습니다. 저는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봉사단 활동을 통해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가장 치열한 현장인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법의 집행 과정을 감시했고, 튀르키예와 투르크메니스탄의 '헌법'을 번역하며 법의 근원적인 철학을 탐구했습니다. '현장성'과 '학구적 깊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했던 지난 활동은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교과서 속의 '삼권분립'이 실제 정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생생한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성평등 관련)의 감사를 두 차례 모니터링하며, 단순한 참관자가 아닌 주권자의 대리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국가 기간산업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거대 담론들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수치와 통계 뒤에 숨겨진 민생의 어려움을 읽어내려는 의원들의 질의와, 이를 방어하고 설명하려는 피감기관의 답변을 분석하며 정책 집행의 무게감을 실감했습니다. 한편, 성평등 관련 위원회의 모니터링은 또 다른 차원의 배움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 감수성이 법과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 입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좋은 법'이란 단순히 잘 만들어진 문장이 아니라, 꼼꼼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동적인 국정감사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튀르키예와 투르크메니스탄의 헌법을 번역하는 작업은 정적인 몰입의 시간이었습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국민이 합의한 최고 가치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생소할 수 있는 두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의 치환을 넘어선 고도의 지적 작업이었습니다.

문장 하나를 번역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통치 구조와 정치적 배경을 조사해야 했고, 그들이 정의하는 '자유'와 '권리'의 개념이 한국 헌법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법적으로 고찰해야 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문화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의 헌법을 다루면서, 서구 중심의 법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세계의 법문화를 이해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낯선 법률 용어들과 씨름하며 정확한 표현을 찾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들은, 앞으로 제가 마주할 수많은 법적 텍스트를 대하는 신중함과 엄밀함을 기르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은 제게 '법'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야를 선물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법이 집행되는 '현실의 복잡성'을 배웠다면, 헌법 번역을 통해서는 법이 지향해야 할 '이념의 보편성'을 탐구했습니다.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철학 없는 법은 맹목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 배운 '시민으로서의 비판적 감시 역량'과 '연구자로서의 진지한 탐구 자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부조리를 예리하게 포착하되, 그 이면의 구조적 원인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인재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강 ○

법정치봉사단 활동을 통해 지난 몇 달간 다양한 형태의 법, 정치 관련 봉사에 참여하여 법학도의 역할과 공적 책임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9월 말에 진행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외국 헌법 번역 등 여러 활동을 수행하면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공적 제도의 작동방식과 그 문제의식을 체감할 수도 있었으며, 판결문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1심에서 3심으로 이어지는 한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모두 보고 분석하면서 더욱 판결문을 깊고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찾아볼 수 없는 외국의 헌법 전문을 보고 번역하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 인권위원회 및 행정안전 위원회 관련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언론 기사나 요약된 자료로만 접하던 국정감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질의와 답변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는지 직접 살펴보면서 입법부의 감시기능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의 경우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던 국정감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의 경우는 많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이성적으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 보다는 감정적으로 정치적인 잘잘못을 따지려고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받는 국가 인권위원회장의 태도도 정말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넘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수준의 행정통제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을 각각 분석하면서 법원이 어떻게 법리를 적용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에서는 행정 작용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접근방식을 배우며 행정법의 구조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존속학대 사건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법률이 단순한 규범을 넘어서 현실의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 외적으로는 판결문을 잘 제공해주지 않아 리서치 활동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분명 판결문 제공에 어렵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몇 사건들은 판결문 제공 요청을 해도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아 활동의 장애물이 된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책이나 강의로 배우는 법리와 실제 판결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가장 큰 배움은 법학이 결코 책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의 기록, 판결문, 헌법조문의 번역에도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노력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었다는 점이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법정치봉사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가진 법조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강 ○ 우

이번 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번역봉사와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면서, 법과 제도가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법률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지 이해하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먼저, 에스와티니 헌법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했다. 대한민국과는 국가의 형태와 형성 과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문장을 옮기는 것을 넘어 원문에 담긴 법적 의미와 체계, 그리고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맥락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번역이 가능했다. 표현 하나가 주는 뉘앙스의 차이와 조항의 구조적 연결이 결국 법적 해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도 세심한 판단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법률 체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법적 가치와 권리 보장 방식, 헌정 구조를 비교해보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 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이번 학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참여한 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에 대해 뉴스 기사로만 접했기 때문에 직접 모니터링할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 봉사를 통해 과방위, 문체위, 국방위 등 여러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며 국회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기사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질의·답변 역시 훨씬 심도 있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각 위원회가 미래 산업, 과학기술, 문화정책, 국방안보 등 매우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새롭게 다가왔다.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하다 보니, 평소에는 지나치기 쉬운 공공기관의 결정 하나, 의원의 질의 하나가 얼마나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법률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책 감시가 왜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시민의 감시 기능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학기의 두 봉사는 분야는 다르지만, 결국 '법과 제도가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번역봉사는 법적 언어의 정확성과 접근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고,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시민 감시의 가치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다. 학기 중 현실적인 시간 제약으로 두 가지 활동 외에 다른 봉사에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다음 학기에는 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법률소비자연맹의 여러 봉사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동기도 생겼다.

○ 서울대학교 강 ○ 윤

로스쿨 입학 준비 블로그에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

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봉사 활동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았고, 활동 소개에 더욱 흥미가 생겨서 봉사활동에 곧바로 지원했다.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꿈꾸고 있기에 해외 법을 번역하는 활동, 판결문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주로 지원했고, 국정감사 모니터링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의 헌법재판소 및 군사법원 모니터링을 신청했다. 활동 전반에 걸쳐 법적 지식도 더 쌓고, 법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먼저 번역 봉사 활동으로는 스웨덴 헌법 중 'The Riksdag Act'라는 법의 일부를 번역했다.

스웨덴은 왕이 있으면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스웨덴의 의회를 의미하는 Riksdag을 규정하는 법이 헌법의 지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 법률이나 정치 용어를 보통 영어로 접할 기회가 없는데, 번역 봉사를 하면서 단어들을 찾다 보니 새롭게 배운 용어가 많이 있다. 그리고 법률이다 보니까 직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의 법이 풍기는 뉘앙스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도 많이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자연스러운 번역이 된 것 같아 배운 것도 많고 뿌듯함도 많이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다.

다음으로 가을학기에만 진행되는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배움이 있었다.

살면서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다. 항상 기사로 접하거나, 유튜브에서 짧게 편집된 영상으로 보았었다. 감사 과정 전체를 보니까 의원들이 하는 질문이 얼마나 유의미한지, 그들의 태도가 적절했는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지난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양당의 갈등이 더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 비상계엄의 선포가 위헌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국정감사라는 자리에 걸맞게 감사 기관에 대한 질문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면 더 목적에 맞는 감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된 정당에 관계 없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인상을 받았다.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온전히 시청하면서 지나친 정쟁이 피로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꼈다. 내년에는 보다 양질의 질문이 주를 이루는 국정감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며 가장 큰 흥미를 느꼈다. 한 사건에 대하여 3

가지 판결문을 정독하고, 원심 판결의 법리 해석과 대법원 판결의 법리 해석이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재밌었다. 또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삼심제도의 중요성도 체감했다. 특히 이번에 조사한 판례는 모두 국제인권 공개강좌에서 접했던 판례인데, 실제 판결문에서 국제인권 규범이 어떻게 인용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발견하는 것도 뜻깊은 경험이었다. 나중에 법관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법관들이 얼마나 넓고 깊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도 감득하였다.

다음 학기에도 봉사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참여했던 번역 봉사 활동,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포함하여 재판 방청 활동과 사설 분석 활동도 참여해보고 싶다. 새로운 봉사를 통해 어떤 점을 새롭게 배울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이번 학기에는 결과물을 늦게 제출하거나 빠듯하게 제출한 적이 많다는 점을 반성하며, 다음 학기에는 미리미리 부지런하게 봉사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글을 마친다.

○ 연세대학교 김 ○ 영

2025년 가을학기 동안, 저는 법률연맹단체 활동을 통해 법률 지식의 지평을 국내 입법 및 정책 영역까지 확장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여름의 전문 번역 활동이 법률의 '구조적 이해'를 높였다면, 이번 가을의 국정감사 지원과 다국어 번역 봉사는 법이 현실 사회의 변화와 갈등에 어떻게 '적용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의 모든 과정은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과 실무 능력을 동시에 함양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가을학기 초반에는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카타르의 법률 문서 번역 봉사를 수행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의 두 나라(파라과이, 페루) 법률에서는 자원 개발과 관련된 환경법적 쟁점이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법률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포르투갈 법률은 대륙법 체계의 견고함과 동시에 유럽연합(EU)의 법규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중동의 카타르 법률 번역은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노동 관련 규범이 어떻게 전통적인 문화적 배경과 조화를 이루려 하는지 분석하는 흥미로운 비교법적 학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대륙과 문화권의 법률을 접하며, 법을 보편적 규범이자 동시에 지역적 정체성을 담는 그릇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의 NGO 국정감사일정표를 확인하여 기후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공지사항에 게시된 일정표를 참고하여 모니터링할 상임위원회와 피감기관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해당 날짜의 감사 과정을 관찰 및 분석했습니다. 붉은색으로 기재된 외부 감사는 물론, 간혹 실시간 동영상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공직자의 책무 이행 과정을 시민의 시각에서 주도적으로 감시했습니다.

특히 기후노동위원회모니터링을 통해서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정책의 현황과 산업 재해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 내용을 분석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과제가 법과 정책 영역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률이 단순히 분쟁 해결을 넘어,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능동적인 수단임을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모니터링 활동은 첨단 기술 시대의 법적 난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요구했습니다. 인공지능(AI) 규제 방향, 플랫폼 독점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쟁점을 다루는 과정을 관찰하며, 기존 법체계가 급변하는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규제 공백과 사회적 영향을 체감했습니다. 시민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비판적 시각과 규제 역량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국제 법률 번역을 통한글로벌 거버넌스의 이해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한국내 정책 실

무의 간접 경험을 융합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경험들을 통해 얻은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복잡다단한 사회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통찰력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합니다.

○ 일반 김 ○ 서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네 번째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작년 1년동안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 신청했고, 어느덧 소감문을 쓰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지난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질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할 때, 정치·사회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었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일깨워주었고, 기본 소양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 뉴스를 챙겨보고,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사안의 배경이나 파급 효과를 생각해보는 등의 습관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총 3개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10월 16일에 진행된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월 14일에 진행된 법사위의 법무부 등, 10월 23일에 진행된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입니다. 법사위 이외에 다양한 상임위의 국감을 모니터링하고 싶었지만, 가장 흥미가 있는 상임위가 법사위라서 먼저 진행하고 보니 다른 국감에 시간을 투자하기 힘들어져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또 가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른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우선으로 진행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선, 제가 모니터링한 국정감사에 대한 소감은 실망감과 함께 깊은 걱정이었습니다. 이번 국감은 그저 정치적 공방을 위한 장으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인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지만,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대질신문으로 피감기관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감사가 뒤로 밀리고 특정 사건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감사위원들의 태도에 실망과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권위적이고 편향된 태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퇴장 명령을 남발하고, 기자들을 추방하거나 특정 정당에 편향된 태도로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막말과 고성으로 국정감사의 품위는 사라져 국회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경험이 쌓일수록 해당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조금 더 성장한 관점에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피감기관 장의 답변이 모호한지, 개선 의지를 보이는지를 더욱 날카롭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며, 어떤 안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지 등 의원실의 관심사와 질의 전략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질의가 전부 중요해 보였다면, 이번에는 중복·단순 현황·건설적 질의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저번 활동과 다른 점은 보고서에 감사위원에 대한 소감을 적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을 적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전문성도 부족하고, 개인의 감상이나 편향된 평가로 보여 공정성을 해칠까 염려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적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번 작성해보니 오히려 소감을 작성하는 부분이 기다려졌습니다. 감사위원의 논리 구조, 답변 유도 전략을 관찰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질의 너머 배경·의도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동적 시청자가 아닌 주체적으로 평가한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되도록 간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간이보고서 작성이란 당일 모니터링을 하고 간략히 쟁점과 잘한 의원 못 한 의원 선정,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 시간을 더 인정해 준다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 현장을 생생하게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원, 증인, 피감기관 등 그들의 노고와 긴장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고, 국가 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엄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국감에는 고성과 막말로 파행을 거듭한 경우가 많았는데, 국감 중단 후 언제 다시 시작하나 기다리는 시간은 집중력도 흐려지고 밤늦게까지 감사가 진행되면서 피로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활동에서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 비판과 분석을 통해 책임감과 시민 의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서울고검 등 모니터링에서 느낀 법률가로서의 윤리의식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높은 도덕성은 기본 소양이고, 투명성이 국민 신뢰의 근간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겸허한 자세로 봉사하는 법조인,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활동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정치·사회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비판적 시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백 ○ 영

첫 시도였던 만큼, 무언가를 확실히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보다는 참여에 의의를 두고 시작한 활동이었으나, 그 안일함을 무색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시각(가치관), 그리고 진로를 향한 강력한 원동력이 생겨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두 번의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다섯 번의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필수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 대상기관으로 헌법재판소(법사위)와 경찰청(행안위)을 택했다. 때마침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1 – 불의에 맞선 칼날』을 읽고 있었기에 각 '판단적 선언'과 '구체적 실행'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두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으리란 생각이었다. 실제로도 그랬다. 특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논의되었던 '재판소원'이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채해병 사건' 등은 최근 뉴스에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사안들로, 각 기관과 국회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가 만들어내는 구조를 인식함으로써 정치적 사안들을 보다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판결문 리서치로는 두 건의 형사와 세 건의 민사를 다뤘다. 법 관련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초반에는 판결문을 읽는 데만 몇 시간씩 썼던 기억이 난다. 어느 정도 판결문의 구조가 이해되어 익숙해진 후에는, 법이 가진 불완전성에 매료되었던 것 같다. '대법원2021도6357'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구속'의 의미 파악의 중요성이 상당했는데, 별개의견과 보충의견 모두 훌륭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 읽는 내내 흥미진진했다. 법은 보편적 적용을 위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또 그렇기에 법원이 제한된 해석을 통해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답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전공에서 배우곤 했던, 여러 비평이론을 적용하여 가장 그럴듯한 — 물론 '그럴듯한'의 정도는 독자 나름이지만 — 작품 해석을 도출하는 작업과도 닮아서도 좋았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법이, 사실은 불완전한 인간이 보다 더 불완전한 언어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형태이기에 태생적으로 부드러운 면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켜주어 좋았다.

끝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며 잠시 고민했던 부분을 공유하고자 한다. 혹자는 판결문을 두고 문장의 길이를 지적하며 독자의 편의를 위해 보다 짧게 작성하는 것을 권유하기도 하고, 법에 능통하지 않은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이론을 부가 설명 없이 기재함을 꼬집으며 보다 친절하게 작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판결문을 읽어보기 전까지는 나 역시 이러한 의견에 조금 더 동의하였는데, 활동을 진행해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듯하여 생각이 바뀌었다. 판결은 인과적 · 상관적 논리를 요구한다. 한 문장 안에서 이뤄져야만 그 연결성이 흠결 없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나아가, 판결은 오로지 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설득하는 데 목적을 두므로, 그 이상으로 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가 설명을 위한 지면 할애가 당연하게 여겨질 이유가 없다. 물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때로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기에 예측 불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사항들이 모든 판결문에 적용될 타당성은 부족

해 보인다. 고작 다섯 번에 불과한 경험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고도 생각된다. 추가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이 질문에 보다 명쾌하게 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한양대학교 심 ○ 연

삼권분립의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고찰한 '법'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에서, 나는 오히려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정확하게는 학창 시절 읽었던 헌법 관련 도서를 접하며 법에 대해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바쁜 현실에 치여 이를 잊고 지냈다. 그러던 중, 동남아 화장품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내 브랜드의 위조 제품들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고스란히 업계 근로자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현실을 마주하며 법 제도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후, 법에 대한 호기심이 법조인이라는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확장되었고, 사법 현장을 조금이나마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탐색하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연맹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실제 사법 현장과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라고 판단하여 이번 가을학기 활동을 신청하게 됐다. 본 소감문에서는 법과 정치에 최근 관심이 커진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정감사의 의의와 국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의무를 다시 한 번 느낀 소중한 경험에 대해 솔직한 후기를 남기고자 한다.

총 5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느낀 바로는, 올해 국정감사는 제도의 취지에 다소 어긋나는 시간이 다수였으며 실효성 또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활동에 앞서 받은 교육 자료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의의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 주도 하에 행정부와 사법부의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회의 운영이나 감사 주제와 무관한 정치적 공격이 난무했다. 감사의 목적보다는 자극적인 논란거리를 언급하거나, 본인을 언론과 대중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의심이 드는 화제성 강한 소재만을 불필요할 정도로 반복 질의하는 의원들을 다수 목격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는 검찰 개혁이라는 중대한 현안이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의견 공유가 아닌 고성과 비난만 오가며 장시간 동안 남은 것 없이 공전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일부 위원들은 취지에 걸맞은 감사를 진행하며, 국가 차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질의 내용에 없던 부분까지 스스로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지난해 혹은 그 이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질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는 것이다. 주요 정책의 변화 방향은 감사 이후 개별적으로 찾아봐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다수 의원이 당면한 논란거리에만 집중하여, 동일한 증인에게 같은 내용을 돌아가며 중복 질의하는 모습은 비효율적으로 느껴졌다. 질의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국정 전반을 폭넓게 감사하는 것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해상도'가 한층 높아졌다. 진로에 대한 관심을 넘어, 국민으로서 국정감사에 더욱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체감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을 정확히 알고 주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동기를 얻었다. 법에 관심이 없는 지인들에게도 민주 시민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접하게 된 중소기업 관련 법률과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이 생겨,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공부를 이어갈 계획이다.

○ 부산대학교 이 ○ 현

올해 5월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쉬면서 나의 진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다. 인터넷에 이것저것 검색해 보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법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지 찾아보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부분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부담도 적고 새로운 경험이자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신청했다.

오티 자료를 받고 읽어보면서 회신서도 보냈다. 자료를 읽다 보니 사명감이 생긴 느낌이었다. 특히 3D 친화적이라는 말이 와닿았다. 봉사를 편하게 할 생각에 신청한 것도 있는데 힘들고 기피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봉사를 열심히 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가을학기 봉사는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필수였다. 국정감사가 뭔지는 대충 알고 있었고 뉴스에 가끔 나오는 걸 봤던 경험은 있는데 직접 시청해 보는 건 처음이었다. 제공받은 시청 방법 설명자료를 보니 생각보다 쉽게 시청할 수 있었고 플랫폼도 많았다. 아쉽게도 학교 시험 때문에 국정감사 초반부는 신청을 못 했고 시험이 끝난 후에 신청을 해봤다. 내가 고른 건 기후에너지노동환경 위원회와 성평등가족 위원회의 국정감사였다. 처음엔 보고서에 입력할 것도 많고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몰라서 좀 정신이 없었는데, 계속하다 보니 수월해졌다. 실제로 국정감사를 시청해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TV에서 본 것처럼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어서 놀랐다. 그런 부분은 살짝 보기가 힘들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몇 명 있었다. 나는 일단 매너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기후에너지노동환경 위원회는 피감기관을 엄청 많이 불렀었는데 한 번도 질문을 못 받은 기관도 있어서 좀 아쉽기도 했다. 국정감사를 시청하고 보고서를 정리해야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다. 그래도 그만큼 봉사 시간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보상되는 느낌이었다. 피감기관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을 감시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활동이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청한 봉사는 판결문 리서치다. 다른 활동보다 접근하기가 쉬웠고, 판결문을 읽어보고 정리해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았다. 직접 사건을 고를 수 있었는데 너무 흔해 보이는 건 안 하고 싶었고 인권과 관련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주제로 하는 사건이 있어서 신청했다. 판결문 리서치도 할 게 많았다. 재판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도 다양하게 찾고 사실관계와 쟁점도 정리해 보고 판결문 전문에서 중요한 부분에 표시도 해야 했다. 그래도 의미가 있는 활동이니까 힘을 냈고, 일반인들을 위해 좀 더 쉽게 판결문을 정리하도록 노력했다. 하나를 끝내고 하나 더 해봤다. 두 번째로 고른 것은 훈육과 정서적 학대 행위를 주제로 한 사건이었다. 내용이 첫 번째보다 적어서 좀 더 편하긴 했지만 그만큼 꼼꼼히 해보려고 했다. 처음 판결문 리서치를 했을 때 느꼈던 생각을 참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좋은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활동을 하면서 판결문을 읽어보니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정독을 하고 모르는 내용은 찾아보고 했다. 그게 또 공부가 된 것 같다. 두 사건 모두 원심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는데 여러 번 재판받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했다. 원래는 언론모니터링도 신청했는데, 시간상 좋은 결과물을 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중간에 포기를 했다. 주제는 '한-미 관세 협상'으로 좋은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기사를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봉사를 마무리하고 총 시간을 확인해 보니 최소 인정 시간 정도였다. 많이 하면 좋았겠지만 일단 인정은 받을 수 있으니 만족한다. 약 30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도움이 되는 곳에 내 시간을 쓴 것이 보람차다. 놀거나 쉬거나 하는 등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후회는 없다. 다음에 봉사를 한다면 더 성실하게 참여해 봐야겠다. 수많은 봉사자들의 힘과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 활동의 감시와 사법 감시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나도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뿌듯하다. 내가 봉사를 한 시간만큼 누군가에게, 어딘가에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 서울대학교 김 ○ 현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봉사단 활동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분석하는 '판결문 리서치'와 입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졌다. 교과서 속의 법리와 뉴스로만 접하던 국회의 모습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감시'가 왜 필요한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대법원 2023도16586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기획재정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축인 사법적 정의와 입법적 견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았다.

법리적 엄밀함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대법원 2023도16586 사건을 중심으로) 처음 판결문 리서치를 시작할 때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와 복잡한 사실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허위사실공표죄)을 분석하며, 법의 해석이 단순히 문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해당 사건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건이었다. 1심과 2심은 '매입'과 '증여'라는 취득 원인의 차이, 세부적인 사실관계의 불일치에 주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며, 선거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보다는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견 표명'의 영역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통해 1, 2심의 엄격한 법리 적용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 사이의 간극을 목격했다. 대법원은 세부적인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이 의혹 제기와 검증에 있다면, 이를 처벌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필수적인 상호 검증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사법부의 고뇌가 담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설문에서 답했듯이, 객관적 사실관계(토지 보유 등)가 합치한다면 지엽적인 부분의 오류로 후보자 검증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이번 리서치는 법적 잣대가 현실 정치와 만났을 때 '선거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사법 감시가 '해석의 영역'이었다면,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실전의 영역'이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감사를 지켜보며, 국회의원들의 질의 수준이 국익과 민생에 직결됨을 확인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재정건전성, 부동산 공급 등 국가 경제의 핵심 이슈들이 다뤄졌다. 인상 깊었던 점은 막연한 정치 공세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법리적 근거를 제시한 의원들의 활약이었다. 예를 들어, 박수영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법률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했고 , 이소영 의원은 '2027년 서울 아파트 공급 8천 세대'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했다. 반면, 단순히 정부 정책에 학점을 매기거나(A~F학점) 수사적인 비판에 그친 질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다.

외교통일위원회 모니터링에서는 재외국민 보호와 같은 민생 이슈가 돋보였다.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김석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장관의 현지 방문 등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는 모습은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정애 의원처럼 산하기관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인 내부 자료로 입증하거나 , 강선우 의원처럼 시각장애인의 여권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소외된 영역을 챙기는 모습에서 '공익성'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의원들이 과거의 칼럼이나 개인적 사상을 문제 삼아 정쟁을 유발하거나, 실질적인 대책 논의 없이 보고 시점만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판결문 한 줄, 국정감사 질의 하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무게감을 실감했다. 판결문 리서치는 법리적 사고의 확장을,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비판적 감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특히 "구체적인 데이터와 논리 없이는 올바른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사실과 의견을 엄밀히 구분하려 노력했듯, 국정감사에서도 감정적 호소가 아닌 팩트에 기반한 질의만이 피감기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공 지식을 함양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사법·입법 과정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겠다.

○ 한국조지메이슨대학　김 ○ 현

2025 가을학기 봉사활동의 핵심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다. 이전 학기 봉사에서 언론 분석과 판결문 연구를 통해 사회 제도에 대한 기초를 다졌다면, 이번 학기에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검증되고 운영되는지 그 '현장'을 직접 관찰하는 데 집중했다.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단순히 회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며 어떤 문제의식을 통해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법과 행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장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외교통일위원회 감사는 특히 인상 깊었다. 외교부, 재외동포청, 한아프리카재단 등 다양한 기관들이 질의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검증받는 모습은 언론 기사로는 느낄 수 없는 밀도를 가지고 있었다. 재외동포 지원, 국제협력 사업, 외교 현안 대응 등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절차적 문제와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재외동포청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과 행정의 간극, 외교부의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지적들은 행정이 단순한 평가로 규정될 수 없고 복잡한 구조 속에서 조정되는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국정감사가 비판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절차라는 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방행정과 치안 문제를 다루며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다. 경기도청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이 보고하는 지역 현안은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재난 대응, 지역 균형발전, 경찰 조직 개편 등은 정책이 현실에서 갖는 무게와 영향을 잘 드러냈다. 특히 같은 사안을 두고도 경찰청·지자체·행안위의 관점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정책 시행이 단일한 해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과 합의를 통해 현실적인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했다. 이 과정은 국정감사가 왜 매년 반복되어야 하고, 행정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되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중 가장 큰 것은, 행정이 추상적 구조가 아니라 사람과 제도의 상호작용 속에서 움직이는 '현장'이라는 사실이었다. 각 기관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조율하는 과정은 책이나 기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긴장감과 현실성을 담고 있었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복잡한 행정 현실을 한자리에 모아 점검하는 과정이었고,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직접 배울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국정감사에서 느낀 행정의 복잡성과 대비되는 법적 판단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대법원 2024도19846)' 판결을 통해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법적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며, 법적 안정성과 정의 사이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국정감사에서 본 정책 결정의 유연함과 판례 분석에서 느낀 법적 판단의 엄격함은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함께 고려할 때 제도 전반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번 학기의 봉사활동은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행정의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적 판단의 구조까지 함께 살펴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정책이 어떤 기준으로 검증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와 연결되는지 생각할 수 있었던 경험은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제도를 단순히 비판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와 취지를 이해하고 개선 가능성을 고민하는 태도를 갖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였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사회 제도를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 발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김 ○ 규

이번 학기에 참여했던 봉사활동은 나에게 많은 배움과

성찰을 주었다. 11월 7일까지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 속도가 너무 빨라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기가 쉽지 않았다. 회의가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들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웠고, 낯선 전문 용어들이 쏟아질 때는 따라가는 것조차 벅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집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 말이 빨라도 핵심을 빠르게 잡아 문장으로 정리하는 방법, 불필요한 단어를 걸러내고 의미 있는 내용만 기록하는 능력, 그리고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발언이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능력을 배울 수 있었다. 단순히 기록을 하는 활동을 넘어, 정보를 듣고 정제하는 과정 전체가 나에게는 새로운 훈련이었던 셈이다.

11월 25일까지 진행한 10대 일간지 사설 분석 활동 역시 내게 큰 의미가 있었다. 처음에는 하루에 읽어야 하는 사설의 분량이 너무 많아 부담을 느꼈다. 사설마다 다루는 분야도 매우 다양해서 경제, 정치, 사회, 외교 등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내용을 이해해야 했기에 초반에는 거의 모든 문장을 두 번씩 읽어야 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뉴스 제목만 보던 내가, 이렇게 깊고 복잡한 사회적 이슈를 매일 사설을 통해 접하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아왔는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하루하루 읽어나가다 보니 점점 눈이 트였다. 비슷한 주장을 서로 다른 신문사에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느끼게 되었고, 동일한 사건이라도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는 사실도 체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사설을 꾸준히 읽다 보니 사회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커졌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 정보의 의미를 판단하고 내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시작했다.

이번 봉사활동 전반을 돌아보면,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처음에는 '봉사'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집중력, 청취 능력,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 등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이 활동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국정감사나 사설 분석처럼 사회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배우는 활동은 책이나 수업을 통해 얻는 지식과는 또 다른 의미를 준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참여해 더 깊이 있고 넓은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박 ○ 정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가 구체적으로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식을 체감하였다. 다수의 활동이 사법부와 입법부 등의 활동을 감시하고 나아갈 점을 고민하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어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 나는 국정감사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헌법 번역 등의 과업을 수행하며 법치주의 하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시각을 정립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과정을 관찰했다. 당시 국감의 주요 이슈는 중대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 시스템 미비, 임금 체불 및 도덕성 문제, 부당노동행위 무력화 등이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 지난 5년간 99.5%가 벌금형에 그쳤다는 통계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또한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고도 국감 출석을 고의로 회피한 사례를 통해, 도산죄 수사 및 임금 체불 기업의 신규 상장 제한과 같은 근본적인 상법 개정이 시급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는 선거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했다. 해당 사건은 상여금에 부가된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결론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고정성 개념이 폐지되었는데 근로기준법의 제정목적에도 부합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이 단순한 이론적 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며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도구임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에스와티니 헌법 번역을 수행하며 법률이 한 사회의 정체성을 담고 있음을 고찰했다. 국왕 중심의 군주제 국가인 에스와티니의 헌법을 번역하며, 공직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권한이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왕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명시한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이 국왕에게 집중된 구조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을 에스와티니의 역사적 배경에 따른 정치 체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은 사법기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통해 객관적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이 그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또 그 사회의 양태를 결정하는 순환을 여실히 실감했다. 결국 국민의 단결된 감시만이 주권과 정의를 회복하는 열쇠다. 앞으로도 공정한 삼권 분립의 체계가 민주국가의 튼튼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정의와 진실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고려대학교　박 ○ 연

이번 가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언론모니터링과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멀리서만 바라보던 공공 영역을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뉴스를 통해서만 스쳐 지나가던 이슈들이 실제 기록 속에서는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또 정책 판단의 기준이 현장에서 얼마나 복잡한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 있게 느껴졌다. 이 활동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자료를 읽고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그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뒤에 작동하는 의도와 구조'를 함께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활동이 끝난 지금 돌아보면, 내가 얻은 것은 개별적인 지식보다도 정보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기록을 다루는 태도 쪽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언론모니터링을 시작하며 가장 놀랐던 점은 하나의 정책이나 사건이 서로 다른 신문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서술된다는 사실이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동일했지만, 어떤 언론은 문제점을 깊게 파고들었고, 어떤 언론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심지어 어떤 언론은 해당 이슈를 거의 다루지 않아 언제나 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보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나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눈에 보이는 문장보다 그 문장 뒤의 구조를 먼저 보려고 했다. 제목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 첫 문단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제시했는지, 어떤 인용문을 강조하고 어떤 의견을 삭제했는지, 기사 말미에서 문제를 확대하는지, 축소하는지 등의 요소들이 논조를 결정했다. 시간이 지나고 분석이 쌓이자, 내가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부분들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사실 관계는 같아도, '어떤 요소를 중심에 놓느냐'와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만으로 기사의 인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실감했다. 이 변화는 내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단순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왜 이렇게 말했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다루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론모니터링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언론모니터링보다 훨씬 더 현장감이 느껴지는 활동이었다. 여기서는 말과 말 사이에서 정책의 빈틈이 드러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명확한 개선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회의록을 기반으로 질의와 답변을 분석하는 과정은 질문 하나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체감했다. 의원들 중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준비가 부족해 논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기관의 답변

에서도 성실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태도와 모호한 표현으로 넘어가려는 태도는 확실히 구별되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국정감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처럼 보이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제 제도 개선에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지점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문제 제기의 방향이 바뀌면 정책의 다음 단계도 바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모니터링을 함께 경험하면서 '기록'이 가진 무게를 처음으로 제대로 느끼게 되었다. 한 문장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표현이 반복되는지에 따라 사실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전에는 기사나 정책 발표를 볼 때 내용만 빠르게 확인하곤 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내용만큼 구성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 구성 속에서 의도가 드러나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도 어느 정도의 비판적 시각과 분석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었다.

활동을 시작할 때는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겠다는 마음이 컸지만, 활동을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 이상을 얻었다고 느낀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 체감했다. 정치·행정이 어떻게 기록되고 논의되는지,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구성하는지, 정책의 실제 흐름이 어디에서 중단되고 어디에서 움직이는지 책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직접 관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었다. 그 역동적인 과정에 잠깐이나마 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 기쁘고 뿌듯하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몸에 익힌 '정보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은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리라 믿는다.

○ 숙명여자대학교　강 ○ 연

법과 관련한 대외 활동을 찾다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법률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봉사라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학기 중에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망설여졌지만, 활동을 끝낸 지금 느끼기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활동은 아니었다. 오히려 봉사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것들을 보고 읽고 사고하는 여러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접하는, 탐색할 새로운 시선,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진행한 활동은 가을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국정감사 활동과 헌법 번역 봉사였다. 헌법 번역 봉사는 생각한 것에 비하여 시간을 꽤 많이 쏟았다. 헌법 번역이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법률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는 한 장을 끝내는 데에도 한참 걸렸다. 그러나 이후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조금씩 속도가 붙었고, 이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많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익숙한 혹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더 익숙하지 않은 법적 용어로 치환하는 그 과정에서 법률의, 특히 헌법의 구조와 내용을 다시금 상기하고 그 맥락과 헌법의 기능을 되짚는 것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었기에, 헌법 자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헌법 번역 봉사 시작 전 익숙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

가을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이번 봉사활동에서 가장 시간을 쏟은 활동이었고 그만큼 보람찬 활동이었다. 우선 한 위원회의 하루의 국정감사를 모두 챙겨보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많았다. 작성하여야 하는 모니터링 보고서의 내용을 계속 곱씹으며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다양한 시선을 가질 수 있었다. 국정감사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국정감사를 보면서 기록하고 생각한 것을 보고서의 형태로 전달하기 위하여 다시 돌려보고 다시 생각해 보면서 작성한 기억이 있다. 당시에는 꽤 까다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어떤 주제에 대하여 내내 생각하고 거기에 나의 생각을 덧붙이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소중한 것 같다. 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생각하는 시간을 크게 가질 일이 없는 요즘이었는데,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 덕분에 시간을 투자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이번 가을학기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학교 활동 등에 평소처럼 보냈을 학기가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무언가를 완주했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차다. 비록 학기 중 봉사활동이라 많은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이번에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내가 참여한 활동에 대해서는 쏟은 시간과 노력에 후회하지는 않는다.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찬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다음에 다시 참여할 기회가 생기면 더 다양한 활동에 기여하고 그만큼 넓은 시선을 가지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 성균관대학교　권 ○ 주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대학생이 교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법학 관련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접하게 되어 알게 되었다. 향후 진로가 법조인인 만큼 법학 자체에 큰 흥미가 있으나 전공이 법학이 아닌 만큼, 비전공자로서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법학 활동은 수업 수강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론적 토대는 법학의 이해에서 출발하지만, 단순히 약 3학기 동안 법학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법학 관련 활동에 대한 나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던 끝에 본 봉사활동을 발견했고, 바쁜 학기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결정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크고 의미 있었다.

우선, 이번 가을학기의 필수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를 한층 넓혀주었다. 그동안 뉴스에서 다양한 이슈와 정치적 공방을 접하긴 했지만, 학업과 일상에 바쁘다는 이유로 그 이슈를 실제로 어떤 정책이 다루고 있는지, 정부와 국회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깊게 들여다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필수활동이라는 목적으로, 처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보았고 처음에는 방대한 분량과 낯선 용어, 익숙지 않은 시사 문제에 긴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책과 이슈를 둘러싼 야당과 여당, 각 부처의 입장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러나 점차 여야의 시각, 각 부처의 입장, 정책의 배경과 쟁점까지 이해하게 되면서 단순 내용만을 알고 있던 수준을 넘어 보다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단연 판결문 리서치였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처음엔 낯설어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만큼 가치있는 시간이었다. 교내에서의 활동과 본 봉사활동을 함께 연계하고 싶다는 생각에, 민법총론을 배우면서 수업시간에 자세히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중요하다고 언급된 판례를 위주로 선정하여 본 리서치 활동을 하였고, 덕분에 단순히 판결문을 바라보는 시각뿐 아니라 수업시간에 배웠던 민법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특히나 판결문을 혼자서 이토록 오랜 시간을 들여 읽고 이해하는 기회는 흔치 않으나 본 활동을 통해 경험해보고 그 과정에서 '법리를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처음 판결문을 접하며 느꼈던 당혹스러움이 누군가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매 판결문 리서치를 끝낼 때마다 느껴지는 보람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따뜻했다.

본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여기서 느낀 책임감과 보람을 잊지 않고, 미래에도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다.

○ 대전대학교　권 ○ 정

법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찾다가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고, 이번 가을학기에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재택 봉사라는 점에서 학기 중에도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며 활동할 수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를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국정감사를 장기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고,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 매뉴얼이 잘 정리되어 있어 큰 부담이 줄었고, 담당자분께서 문의사항에 대해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예상보다 원활하게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시사 이슈들에 대해 깊이 있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헤드라인으로만 보던 커다란 사회 문제의 현황과 정부·국회의 대응, 다양한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대안 등을 직접 들으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천 특수교사 과로사 사건이 기억에 남는데, 여러 국회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단순한 뉴스 제목 너머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PTSD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등, 그동안 잘 몰랐던 사회적 이슈들도 접하게 되었고,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도 스스로 관련 이슈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가 얼마나 시사에 무지했는지를 실감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모르는 부분을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이 오히려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반면, 판결문 리서치는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많았지만, 하필 국가전산망 화재로 인해 법원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법관의 이력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자체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량이 많고 복잡한 사건 하나를 깊이 조사하고, 그 내용을 이해한 뒤 쉽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해 전공의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건을 조사했는데, 판결이 예상 외로 전공의의 손을 들어준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3심까지 법원이 일관된 태도로 근거 법조항을 언급하는 것을 보며, 어떤 사건이든 근거부터 꼼꼼히 찾아보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집행' 등 잘 몰랐던 법률용어를 정리하고 학습할 수 있었고, 힘들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컸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자긍심으로 다가왔고, 포기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봉사는 타인을 위해 시작하더라도, 결국 그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었습니다.

○ 중앙대학교　권 ○ 훈

이번 2025년도 가을학기에는 번역봉사와 필수 활동인 국정모니터링 활동 밖에 하지 못했다. 지난 봄 학기에는 번역봉사를 위주로 하여 판결문리서치 활동도 같이 하였는데, 당시에도 다른 활동인 언론모니터링 활동이나, 재판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못해 아쉬웠었다. 그래서 시간이 남는 여름방학 때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봄학기에 못했던 언론모니터링 활동과 재판모니터링 활동을 주로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또 다른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여름학기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해 사실상 신청만 하고 유기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름학기의 활동도 많이 미흡하여 이번 가을학기에는 더 많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려고 하였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초반과 다르게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서의 과제와 시험들이 예상치 못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나마 자신이 있었고, 봄 학기에도 많이 했었던 번역봉사라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필수 활동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였다. 사실 최소 봉사시간인 30시간을 채울 수 있었던 것도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의 인정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최소시간만 요령을 피워 때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번역 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 '토고'와 '트리니다드토바고' 라는 국가를 처음 들어보았다. 이들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기 전 국가 소개 글을 작성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해 찾아보면서 세상에 다양한 법치국가들이 있고, 아직 내가 모르는 국가와 그 국가만의 헌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학에 관심이 있고, 법학을 다년간 전공하며 수학하고 있는 나에게도 생소할 정도라면 법학에 관심이 없거나,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일반의 법률소비자들도 모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렇기에 나와 같이 봉사로 생소한 국가의 법들을 번역하는 봉사단의 역할이 중요함을 느꼈다.

필수 활동으로 하게 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처음으로 국회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위원회들의 국정감사나 회의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에는 뉴스채널의 생중계 방송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국정감사를 보았고, 뉴스에서 주요 내용과 쟁점만을 따로 소개해주는 것만 보고 접했었다. 그렇기에 국정감사 전반적으로 진행과정이나 진행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통해서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정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잘잘못을 감사하고 질문하여 개선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현재 국정감사에서는 사실상 야당과 여당, 진보당과 보수당의 정쟁의 장으로서만 역할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러한 부분은 정치적 특징이 강할 수 밖에 없는 소관위원회들의 특징이겠으나, 개별 위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인기를 위해서 국정감사장을 이용하는 것 같다.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남는다. 다음 겨울학기에도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인데, 겨울학기에는 더욱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해야겠다.

○ 서경대학교　권 ○ 채

법치주의의 투명성과 민주주의의 견제 원리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판결문 리서치 및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총 약 30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활동은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법률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고 입법부의 기능을 현장에서 관찰하는 귀중한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먼저, 두 건의 3심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원의 섬세하고 복잡한 법리 적용 과정을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A빌딩 관리단 사건에서는 비법인사단인 관리단 소송에서 소송의 상대방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처리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소송 상대방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당사자'로 보고 그의 의결권을 결의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부분을 분석하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4분의 3 이상의 정족수)를 넘어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인도 청구 사건을 통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현실적 쟁점을 다뤘습니다. 영업 목적으로 사용된 컨테이너가 과연 법이 보호하는 '상가건물'의 요건(토지의 정착성,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접하며,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시설물이라도 법적 판단에서는 그 정의와 요건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절감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건 모두를 1심부터 3심까지 추적함으로써, 하급심과 최고법원의 판단이 대립하고 법리가 발전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약 23시간 동안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핵심 기능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방대한 자료와 예리한 질의를 통해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이나 특정 기관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과정을 관찰하며, 국정감사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장치임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현장의 긴장감과 정책 결정의 복잡성을 직접 목격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정책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법률적 사고의 틀을 제공하고, 시민으로서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사회 문제에 부딪힐 때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겠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권 ○ 교

이번 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은 국정감사모니터링 2회로, 나는 10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11월 4일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였다. 이전까지는 뉴스에서 2~3분 정도로만 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 국정감사 영상은 매우 새로웠다. 가장 많이 든 생각은 감사에 여러 기관 대표자들을 부르지만, 대부분의 질의가 1~2개 기관에 몰린다는 점이었다. 국토위 국정감사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 대부분의 질의가 몰리고 질의를 하나도 받지 못한 기관은 없었으나, 성평등가족위 국정감사의 경우 성평등가족부만 질문을 받았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으며, 질문을 아예 받지 못한 기관도 여러 가지였다. 또한,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질문 시간이 매우 짧은데, 이전에 했던 말이나 다른 의원이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으며, 한 가지 질의를 하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 말을 많이 하여 시간이 허비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소속 정당에 따라 질문 방향성이 달라지거나 정치적인 화두를 꺼내기도 하여, 민생 증진을 위한 감사라는 본래 목적이 희석되는 경우가 있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의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등의 내부 비리와 같이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 또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못한 부분이나 속사정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 증진 및 문제점 시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심히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나를 포함한 국민들이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튀르키예헌법과 투르크메니스탄헌법 번역을 했는데, 솔직하게 처음에는 번역에서 법적으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법을 생각하며 타 국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읽어보니 비슷한 부분과 다른 부분들이 느껴졌다. 더 좋았던 점은 튀르키예는 현재 사실상 독재국가 취급을 받고 있지만 헌법에서는 민주주의를 추구함이 느껴졌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대사관 소개글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 설명하고 있으나, 제10조 시민권 관련 부분이나 제13조 등에서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져 형식 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라도 헌법에서 꽤 큰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영어 번역이지만 생소한 용어들과 문장 작성 방식이 많아 난이도가 있었지만, 그만큼 영어 공부를 위한 방법으로써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학기 국정감사보고서는 늦지 않게 작성했지만, 나머지 봉사를 뒤늦게 시작하여 다양한 봉사를 해보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 모니터링이 매우 흥미로워 보였는데, 시간상 하기가 힘들 것 같아 시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대학생 법정치봉사단의 활동은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도 아니고 활동 내용도 만족스러웠다.

친구의 소개로 이번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됐었는데, 우리나라에 법과 정치 관련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러한 단체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고 내가 그 활동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겨울학기나 여름학기에 다시 봉사를 신청하여 그때는 더욱 열심히 많은 시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호서대학교 김 ○ 리

2025년도 법률소비자연맹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국정감사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며 피감기관들이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자로서 평가할 수 있었다.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심층적으로 관찰하며 국정감사가 단순히 정치적 공방의 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10월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이었다. 올해 터진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질책들이 쏟아졌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질의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식과 정책 수립에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경제 정의와 소비자의 권익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볼 수 있었다. 모니터링 당시에는 모르는 경제 용어가 많았고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깊이 알지 못해 질의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보고서를 쓰기 전에 해당 경제 용어와 정책의 배경을 스스로 찾아보게 되었고 그것이 지식 습득에 큰 도움을 주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모르는 단어나 정책들이 많았기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았다. 가장 기억에 남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먼저 모니터링을 진행한 정무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와는 달리 여기서는 법적 공방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 간의 존중과 예의가 없었고 국민의 삶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싸우기에 급급했다. 국민들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싶다가도 결론을 보면 반대 당을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 같아서 보기 좋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활동으로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어 뜻깊었다.

봉사활동을 다 끝내고 보니 국정감사 모니터링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만큼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국민으로서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나 피감기관들의 답변을 통해 얼마나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깊이 있는 질의 내용으로 관련 분야에 관심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도 평가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국정감사 모니터링 말고 다른 봉사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법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은 마음을 더 크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지 못한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다.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실을 관찰하고 점검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

○ 성균관대학교 김 ○ 빈

2025년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법과 정치가 단순히 이론이나 추상적인 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질서와 시민의 삶에 어떻게 깊숙이 관여하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을학기 필수 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스웨덴 헌법 번역이라는 두 가지 핵심 활동을 하며, 제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더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활동의 필수 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각각 8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보고서 작성 시간까지 포함하여 약 2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록 직접 국회의 방청석에 앉아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그 생생함을 느끼며 대한민국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지켜본 경험은, 교과서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생생한 배움이었습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법치주의의 실효성을 체감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과 법무부, 감사원 등 주요 행정기관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의응답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의 감시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가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문적이고 치밀한 법률적 논거를 바탕으로 한 질의보다는 정치적 공방과 같이 진행되었으나,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

관 책임자의 답변 태도 하나하나가 법 집행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평소 법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어 잘 알지 못했던 각 기관의 역할과 여러 논란, 문제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법조인을 꿈꾸는 만큼 제가 갖춰야 할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법과 행정이 기술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규율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원자력, 우주, 보완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국정감사가 진행돼, 평소 익숙하지 않은 주제의 감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이 때로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입법 공백이나,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을 목격하면서 법률과 행정은 끊임없이 사회 변화를 반영하며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 전반을 통해, 저는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임을 확신했습니다.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공적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추적하는 이러한 활동이 바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과정임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외에 진행한 스웨덴 헌법 번역 봉사활동은 저의 시야를 국제법적, 비교법적 관점으로 확장시켜 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번역한 조항들이 언론의 자유와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스웨덴의 선진적인 언론법 조항들을 한국 법률 용어에 맞추어 옮기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 변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문장하나, 단어 하나의 뉘앙스가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정확성과 명료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외국의 법률 체계가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통치 구조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체감했습니다. 나아가, 다른 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돌아보았습니다. 법률 번역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법적 지식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와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뜻깊은 작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법학도로서의 지적 성장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함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법과 행정의 실효적 감시가 곧 시민의 권익 보호임을 배웠고, 헌법 번역을 통해 법률 언어의 무게와 국제적 맥락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이번 가을학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상치 못하게 바빠져 봉사활동을 신청하며 하고자 했던 활동을 전부 하지는 못했지만, 소중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가을의 경험을 발판 삼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전문가로 성장할 것을 다짐합니다.

○ 경북대학교　김 ○ 현

친구를 통해 접하게 된 법률 봉사활동은, 법과 정치와 관련하여 흥미가 있어서 과거 고등학교 시절 선택과목도 '정치와 법'을 선택한 나에게 있어서 매우 관심이 가는 봉사활동이었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가장 흥미로울 것 같았던 것은 판결문 리서치였으나 막상 봉사활동을 시작하니 의외로 국정감사모니터링이 더욱 재미있는 활동이었다.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과거 뉴스에서 부분적으로 클립을 딴 영상만 봐왔었지,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정감사 영상을 전체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어려운 말들이 오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화면에 PPT를 띄워 설명하고, 일반인 신분의 증인들을 세워 민중의 일들에 대해서도 쉬운 말로 질의하여 법조문을 읽을 때보다 더욱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다. 또한 SNS의 댓글창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루머들로 하여금 생겨난 오해들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관련 통계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고,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캄보디아 사건이나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 관한 질의를 통해 사회/정치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두 번째로 하게 된 봉사활동은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이다. 인생 처음으로 가게 된 법정이라 많이 떨렸던 기억이 난다. 판결문은 모르는 단어를 검색하며 읽으면 되지만 법정에서 직접 어려운 법률용어를 마주하게 되면 재판 흐름 과정을 파악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됐는데, 생각보다 법정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의 중간 기일에 참관을 하게 되면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뚜렷하게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또한 변호인이 많아서인지, 재판의 흐름을 위해 판사와 변호사를 마주보는 배치를 하기 위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석에 변호사들이 앉아있고, 변호사석에 피고인이나 증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앉아있어서 자리에서 발언할 때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은 재판에 집중하여 들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문제들이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이기 때문에 판사의 말에 주목하며 재판을 들었는데, 판사는 약간 법정의 리더 같은 느낌으로 재판을 주도하는 것 같았다. 몇몇 사건 중에서는 증인 심문에 필요한 문서 파일을 열려고 했으나 법정 시스템 내의 문제로 인하여 프로젝터로 보이는 걸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여 법정 모니터에 띄우는 해프닝도 있었고 법정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재판을 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이지만 사람다운 느낌이 들어 무언가 친근함을 느끼게 된 것 같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법정은 마냥 어려운 곳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문제를 다루는 낯설지 않은 곳임을 느끼게 됐다.

세 번째로 하게 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다. 판결문을 보는 것은 과거 정치와 법 시간에 심화 공부를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보여준 일부분을 본 이후로 처음이었다. 첫 판결문은 무고죄와 더불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사건 내용은 간단하여 쉽게 읽혔다. 또한 적용된 법 조항도 뉴스기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이라 두 번째 판결문의 조세법과 관련한 내용보다는 쉽게 이해됐다. 두 번째 판결문 내용은 인지세과세처분취소에 관한 것이었다.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PIN번호가 적힌 종이가 과연 인지세 부과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과거 게임을 즐겨했던 편이라 더욱 관심이 갔던 것도 있다. 위 종이가 상품권에 해당하려면 종이가 제공하는 게임머니라는 것이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해야했고, 행정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게임머니는 상품 또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 종이는 상품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수준의 일반인 눈에서 볼 때는 상품권과 비슷한 형식의 종이라서 통칭 상품권으로 부르게 될 종이였겠지만 법적으로는 상품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니 신기했다. 평소 게임을 해보았던 개인의 주관적 생각으로는 게임머니는 여타 상품권으로 제공되는 물건과는 다른 성격을 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게임머니 PIN번호 종이에 대해서는 게임머니를 카드 결제나 입금으로 충전하지 못하는 한정적인 계층을 대상의 편의를 위해 판매 한 것이라 해당 판결에 공감이 갔다. 위 활동들을 통해 들었던 생각은 법적인 해석도 정치적인 판단도 모두 사람의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 시대착오적이거나 민중의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 판단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의식과 시민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더욱 나은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김 ○ 율

국정 모니터링 봉사를 진행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서로 각자의 당에 따라 견원지간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피감기관 감사라는 공통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합심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다소 놀랐습니다. 매일같이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유사한 질의를 한 의원의 발언에 후속 질의를 하기도 하고, 피감기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시간이 초과될 경우 다른 의원이 다시 짚어내기도 하는 모습들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던 국회의원들의 이상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면모는 토지 매각 및 매매에 대한 사기업의 알 수 없는 특혜를 꼬집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일 국정감사가 아니었다면 그저 의심과 정황만으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확실히 짚어 연관되어 있지 않은지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국정감사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국회의원들을 보며 상당히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배우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감사를 한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감탄이 나오는 장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진행해야 할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기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는 저에게 있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중추를 일깨워준 봉사입니다.

국정 모니터링 봉사 외에도 언론 모니터링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0대 일간지에서 매일 나오는 사설을 스크랩하여 보도 성향을 분석했는데, 매일 자기 전 30분에서 1시간을 소요할 만큼 가장 많은 시간을 썼고,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석한 수많은 사설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야 비로소 각 일간지가 어떤 논조와 프레임을 일관되게 유지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크게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던 저에게 있어, 이 봉사는 비판적 수용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정답이지?' 하는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내 생각을 키우는 데 있어 많이 공부하고 나의 주장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되, 내가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음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함을 체감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정 모니터링과 언론 분석은 짧은 기간 동안 사회 구조의 핵심을 경험하게 해준 특색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은 정해진 시간에 쫓기다 보니 급하게 내용을 정리했고, 분량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써낸 내용의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여 상당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방학을 활용하여 더 깊은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해보고 싶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프로그램 중 판결문 분석과 법정 모니터링 봉사를 신청하여, 실제 재판 참관을 통해 사법 현장을 눈에 담고, 이를 분석하는 경험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단순 봉사자를 넘어 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자의 태도로 재판을 방청하여 법률적 이해를 더욱 깊게 다지고자 합니다.

○ 고려대학교　김 ○ 형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면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필수활동이었던 국정감사모니터링에도 참여했다. 책이나 기사로만 보던 법의 절차를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 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훨씬 실감 나게 다가왔다. 재판정에서 오가는 짧은 질문과 답변, 증인이 말을 이어가는 방식, 판사의 꼼꼼한 확인 과정, 검사와 변호인이 각자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 등 모든 순간이 살아있는 공부였다. 이런 경험 덕분에 법조계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분명해졌다.

여러 방청 중에서도 특히 2025고합791 사건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 재판에서 단순히 죄와 형량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뒤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피고는 오랫동안 경찰서에서 근무해 온 공무원이었고, 조현병을 앓는 아들의 치료와 생계를 혼자 감당해야 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 친정의 어려운 상황, 끊임없이 드는 치료비, 대출도 받기 힘든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국 '계'를 통해 돈을 마련하다가 불법 대출 구조에 얽히게 된 과정은 지켜보는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웠다. "5년 동안 힘들게 살면서 자수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고 말하며 울먹이던 모습은 고의적인 범죄라기보다 생활고가 몰아넣은 선택처럼 느껴졌다.

공동피고 역시 문자 조작이나 공모 여부를 놓고 다투었는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특정 상황에 놓이면 쉽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이 피고에게 실형을 구형할때는 법이 판단하는 기준과, 방청석에서 바라본 사람의 사연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껴졌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이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았던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법정은 사실을 가려내는 곳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삶이 그대로 비치는 자리라는 것이다. 법은 조문과 논리로 판단되지만, 결국 그 논리가 다루는 대상은 사람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 법을 공부하면서도 사건을 단순한 조문 적용이 아니라, 그 뒤에 놓인 사정과 심리, 구조적인 취약함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성신여자대학교　김 ○ 진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서는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법정모니터링 활동, 번역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법학을 전공하는 저에게 이론적 지식을 실제 사례와 제도 속에서 다시 체계화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였고,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깊이 체감한 시간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처음 해본 활동이라 모든 과정이 새로웠습니다. 국정감사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장시간 진행되고 다양한 내용들을 다뤄서 많은 분야의 현재 문제점이나 상황들을 알게 되었고, 국정감사가 행정 전반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질의가 정쟁에 가까워 실효성이 떨어져 보이기도 했지만, 대다수 의원이 실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거나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토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번역봉사 또한 처음 해본 활동이었는데, 우리나라 헌법과 외국의 헌법을 비교하며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 국가의 역사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우리나라와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번역봉사를 통해 헌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법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성격과 방향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규범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판례를 많이 다루었는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특성상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논리 구조나 판단기준이 복잡하고 세밀해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모의재판에 참여해 소장과 답변서를 작성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실제 판례는 어떤 논리를 개인정보보호법 사안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어 과거의 활동과 비교해 그때 놓쳤던 법리적 쟁점이나 해석상의 부족함들을 알게 되어 학습적으로도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은 형사소송법을 배우고 있는 이번 학기와 특히 맞물려 많은 생각을 하게 한 활동이었습니다. 형사재판을 직접 방청하며 배운 형사절차상의 개념들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형사사건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의 지위가 형사절차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고, 변호사 없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을까,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며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절차적 보호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피해자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법정모니터링은 형사사법 제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피해자 관점에서의 형사절차 개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은 법을 공부하는 제 관점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법은 단순히 법전 속 문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적용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하며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을 보고, 그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또 외국 헌법을 번역해보는 과정은 법학도로서의 시야를 넓히

고 법을 바라보는 깊이를 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이어가며 이론과 현실을 연결하는 법학적 사고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고려대학교 김 ○ 운

2025년 봄학기와 가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다양한 활동은 제게 큰 의미와 성장의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시민의 권리 보호와 법률 제도의 감시를 목표로 하는 이 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은 단순한 시간 기여를 넘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작은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봄학기에는 주로 해외 헌법 번역 봉사와 판결문 리서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몰디브, 팔라우 등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며 각국의 정치 체계와 기본권 개념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고, 국제적 시각에서 법률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복잡한 사건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법률 실무의 기초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 "소유권 이전 등기", "국제재판관할 취소" 등의 사례는 현실 속 법 적용이 얼마나 다양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을학기에는 활동의 깊이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통해 단체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다졌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활동은 법률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을 분석하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은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는 법률이 단순한 제도나 규범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정의와 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또한 공익을 위한 법률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체감하였고, 앞으로도 법과 사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경험이 제 삶에 남긴 긍정적인 영향력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속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김 ○ 리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는 이번에 처음 경험해 봤는데,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바쁜 학기를 보내느라 11월부터 부랴부랴 봉사를 하느라 시간이 촉박하기도 했다. 내가 좀 더 일찍 봉사를 시작했더라면 더 꼼꼼하게, 또 그 과정을 즐기면서 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그래도 봉사를 다 마치고 나니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경험에서 느낀 설렘과 기쁨이 더 큰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필수봉사 활동이었던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다. 생애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모니터링하게 되었다. 과방위와 외통위의 국정감사를 선택해 신청하였는데, 필수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위원회 조건만이 그 선택의 이유였던 것은 아니었다. 올해 여름 Summer school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 수업을 듣고 난 이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왕모니터링을 하는 거, 인공지능 기본법을 다루고 있는 과방위의 국정감사 영상을 찾아서 선택하게 되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니, 비교적 긴 영상이었음에도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외통위의 경우에도, 내 학과인 영어영문학과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 국정감사 영상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올라와 있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국정 감사 영상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니터링과 보고서 작성이 빠르게 끝났는데,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미완성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은 이후에나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 이미 제출 날짜가 지나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틀 정도 연장해서 제출할 수 있게해주셨다. 그 기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남은 약 10시간 가량의 국정감사 영상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피감사기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있고,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준비를 많이 해 온 질의의 경우, 질의와 답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과방위 국감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경우 K-Fast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 영상을 찍어 준비해왔고, 중요도가 높은 AI 데이터 관련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질의하고, 미반영된 예산의 문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렇게 알맹이가 꽉 찬 질의와 이에 대한 피감기관의 답을 들을 때는 정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질의에 대한 준비가 허술하거나, 질의 태도가 좋지 않은 의운들을 모니터링할 때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번역 봉사 역시 뜻깊었다. 번역해야 하는 헌법은 랜덤으로 배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영어가 아닌 언어의 헌법을 번역해야 되는 것 아닐까 걱정했지만, 다행이도 영어로 번역하는 헌법만 담당하게 되었다. 토고 헌법, 트리니다드토바고 헌법, 튀니지 헌법까지 총 3 국가의 헌법을 번역했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번역 시작 전 각 국가의 기본 정보 및 배경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국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고, 헌법 역시 더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번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잘 모르는 국가가 왜 이러한 헌법을 정해 놓았는지 잘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의 헌법을 번역해 읽게 되는 경험이 굉장히 새로웠고, 유의미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가을학기 봉사는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인 나에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던 봉사였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겨울학기 봉사도 신청하고 싶고, 그때는 더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중앙대학교 김 ○ 은

이번 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번역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처음에는 국정감사의 방대한 회의록 분석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도 했지만, 실제로 활동을 수행하면서 법과 정책이 어떻게 국민의 삶과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상임위의 쟁점을 비교하며 볼 수 있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KT 해킹 사고와 보안 부실,

국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의 역할, 중소기업 정보보호 예산 삭감,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한계 등이 핵심 이슈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의원별 질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통신 인프라와 개인정보를 민간 기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정부가 규제와 지원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어서 모니터링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예방,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임금체불과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한 질의 흐름을 비교하며, 산재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현장의 위험과 노동자의 생계 문제를 어떻게 법과 정책이 보완해야 하는지, 또 제도 집행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생각하게 되었다. 두 상임위 국감을 나란히 모니터링하면서 디지털 권리와 노동권이 모두 '위험을 어떻게 분담하고 관리할 것인가' 라는 공통된 질문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또한, 튀니지 헌법 번역봉사는 국내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외 법제와 헌법 체계를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법문상의 용어와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문맥을 비교하고 보충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

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번역의 책임감과 정확성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법적 의미를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법률 문장의 엄밀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번역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더 다양한 국가의 법조문을 번역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구체적 사실을 통해 학습하고

시민으로서의 관점을 확장하는 경험이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권력의 견제와 감시 구조를 이해했고,

번역봉사를 통해 법률 문장의 구조와 제도적 차이를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내가 앞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며,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정책 담당자와 입법자, 법조인 모두 AI와 관련한 전문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법률소비자로서, 나아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 중앙대학교　김 ○ 린

이번 학기 동안 진행한 봉사활동은 단순한 자료 정리나 정보 수집을 넘어, 사회의 법적·제도적 구조를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뜻깊은 경험이었다. 특히 판결문 리서치와 국정감사모니터링은 제가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배우던 법 제도가 실제 사건과 정책 논의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공공공인재학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으로서,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 진로 목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복잡성과 정교함을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다. "2024다315527 부동산매매대금반환및소유권이전청구의소" 사건을 분석하면서, 단순히 계약서 존재 여부를 넘어 parties 간의 진술, 목적물의 이전 가능성, 기망행위 존재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특히 1심부터 3심까지 판단이 어떻게 변화하거나 유지되는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근거로 논리를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하는지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사적 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들이 적용되는 사례였다. 이러한 분석 경험은 문장을 읽는 능력뿐 아니라, 쟁점을 구조화하고 단계를

나누어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실무적 역량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형사사건인 "2025도3061 상점절도현행범도주죄위반" 사건 리서치는 형법의 구성요건 판단과 양형 사유 검토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다.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판례였던 만큼 절도라는 기본 범죄 외에도 도주죄 성립 요건, 체포의 적법성, 피고인의 행위 동기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형사사건은 단순히 범죄 사실의 유무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절차의 적정성, 사회적 위험성 등까지 세심하게 검토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법적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아울러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입법부의 감시기능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국정감사에서는 법무·사법 행정, 문화정책, 저작권 이슈,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고, 의원들의 질의와 정부 부처의 답변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제도적 허점이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가 많았고, 문체위에서는 문화산업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법과 행정이 단순한 문서상의 논의가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명확히 느끼게 해주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과제가 아닌, 제가 앞으로 지향하는 진로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다. 판례 분석을 통해 법적 판단이 사회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했고,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배웠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행정적 사고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한다.

○ 경북대학교　김 ○ 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민주주의: 방관자에서 감시자로, 그리고 주권자로

1. 서론 : 유리 벽 너머의 세계를 향한 첫걸음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상에서 그 '주권'을 실감하는 순간은 얼마나 될까? 나에게 있어 국회와 법원은 뉴스나 유튜브 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마치 유리 벽 너머의 세계와 같았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호통을 치는 장면이나, 드라마 속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는 극적인 장면들은 익숙했지만, 정작 그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반 시민인 내가 그 과정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막연히 기자나 특정 권한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성역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2회와 법정 모니터링 5회 활동은 그 견고해 보이던 유리 벽을 깨고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봉사자가 아니라, 내 삶을 규정하는 법과 정치가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목격자이자 감시자로서 서고 싶었다. 이 소감문은 멀게만 느껴졌던 민주주의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기록이자, 앞으로 주권 시민으로서 내가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한 다짐이다.

2. 본론 1: 국정감사 모니터링_편집된 영상 너머, 날 것의 의정을 마주하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 나의 정보 습득 창구는 주로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의 짧은 편집 영상이었다. "OOO 의원 사이다 발언", "충격적인 국감 현장" 같은 자극적인 썸네일이 붙은 영상들을 보며, 나는 내가 정치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었다. 하지만 영상을 볼 때마다 늘 의문이 남았다. '도대체 이런 자료는 어디서 구하는 걸까?', '이런 회의 일정은 일반인이 어떻게 알 수 있지?', '나도 원본을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이번 모니터링 활동은 그 물음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었다.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과 일정을 찾아보고, 생중계되는 회의 영상에 직접 접속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기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정보가 아니었다. 단지 내가 방법을 몰랐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였음에도 스스로 장벽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모니터링한 국정감사 현장은 유튜브 숏폼 영상과는 사뭇 달랐다. 편집된 1분의 영상 속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갈등이 폭발하는 장면만 주목받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피감기관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 묻고,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차분하고 치열한 질의응답이 훨씬 긴 시간 동안 이어졌다. 내가 직접 찾아 들어간 그곳에는 자극적인 쇼가 아닌, 국가 운영의 실질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접근 가능성이 주는 힘을 느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가 권력을 감시할 수 있고, 의정 활동을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큰 효능감을 주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에서 언제든 가능한 일이었다. 모니터링을 하며 작성한 평가지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로서 국회에 보내는 무언의 신호였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야말로 의원들을 긴장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임을 깨달았다.

3. 본론 2: 법정 모니터링_드라마가 아닌 현실, 그 속의 '절차적 정의'

법정 모니터링 5회의 경험은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법정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현실의 사법 시스템을 직시

하게 해 주었다. 드라마 속 법정은 언제나 극적이다. 변호사의 화려한 언변, 증인의 오열, 그리고 반전이 거듭되는 전개. 하지만 내가 마주한 실제 법정은 훨씬 차분하고, 때로는 지루할 정도로 사무적이었다.

처음 법정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것은 의외의 적막함이었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유명한 사건이 아닌 이상, 방청석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방청석에 앉아 메모하고 있는 나를 보며 사람들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아마도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관련인, 혹은 증인 중 한 명일 것이라 짐작하는 듯했다. 순수한 시민 관찰자로서 법정을 찾는 이가 그만큼 드물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무적인 풍경 속에서 나는 오히려 깊은 안도감과 신뢰를 발견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쏟아지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고된 일 속에서도 기계적으로 사건을 대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판사는 양 당사자의 진술을 꼼꼼히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되물으며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려 애썼다. 겉보기에 무미건조해 보이는 그들의 표정 뒤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다루려는 직업적 무게감이 느껴졌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지겨울 정도로 지켜지는 절차였다. 당사자 확인, 권리 고지, 증거 채택 등 매 사건 반복되는 절차들이 때로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반복 속에서 법치주의를 보았다.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도 정해진 절차를 건너뛰지 않고 꼬박꼬박 챙기는 모습. 당연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들을 굳이 소리 내어 확인하는 그 과정이야말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 극적인 반전은 없었지만, 묵묵히 절차를 지키며 굴러가는 재판 과정을 보며 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일상의 감시자, 깨어있는 시민으로

국정감사와 법정 모니터링, 두 활동은 전혀 다른 영역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바로 '관심의 힘'이다. 국회든 법원이든, 그곳은 소수의 엘리트만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적인 공간이다. 그 공간이 밀실이 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같은 시민들의 '눈'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나는 어렴풋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입법과 사법의 영역을 내 삶의 반경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국회 회의록을 어디서 봐야 하는지, 우리 동네 법원에 가서 열리는 재판을 어떻게 방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앉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권력은 긴장하고 시스템은 정화된다는 것을 안다.

주권 시민으로서의 뿌듯함은 거창한 구호를 외칠 때 오는 것이 아니었다. 남들이 보지 않는 모니터링 기록지를 채우고, 텅 빈 법정 방청석을 채우는 그 작은 행위들 속에 진정한 주권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나는 이번 봉사활동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려 한다. 앞으로도 뉴스 속 사건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 지방법원의 재판도 방청해 보고, 관심 있는 상임위의 국정감사는 직접 챙겨보며 내 나름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상적 실천을 이어갈 것이다.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내가 찾은 주권자의 책임이자,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확신한다.

○ 가톨릭대학교　김 ○ 영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2025년도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마침 곧 가을학기 봉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하여 법률연맹에서 첫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봉사활동은 이미 정해진 하나의 활동을 하는 것이었는데 법률연맹 봉사활동은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다른 봉사활동과 가장 차별성이 있고 많은 시간을 지루함 없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법과 정치의 영역을 실제로 보고, 생각하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높이고 배울 수 있는 것 또한 여타 봉사활동과 비교하여 특색이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도 가을학기는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더 빨리 알지 못했던 것이 후회될 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을학기의 필수 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지금까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던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일들이 다루어지는지 등을 직접 보고 정리해 보면서 멀게 느껴졌던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선거를 하고 누가 당선되느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현장학습 장소가 정해지는 것, 가로수 정비나 제설작업 같은 것 같은 사소한 일상의 일부분도 모두 정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위원회는 많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보지 못한 위원회가 아쉬웠고, 이후에도 봉사활동 때문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국정감사 때가 되면 관심 있는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살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수 봉사활동을 제외하고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대학 재학 때도 판례를 살피며 많이 해보았던 활동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부담도 없었고, 많은 판례를 분석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선정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제가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행정사건을 살펴보며 새로운 분야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해당 활동에서 의외로 어려웠던 부분은 용어해설이었는데, 법학을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어 해설할 용어를 정하면서 일반인이 이 단어를 아는지 유무를 많이 고민했던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파기환송된 사건 중 흥미가 가는 사건이 많았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은 리서치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처음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할 당시에는 봉사활동 자체보다는 봉사시간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활동에 더 진심이 되어가고, 사회와 정치, 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어 기쁩니다.

○ 연세대학교　김 ○ 정

이번 2025 가을학기는 내가 처음으로 참여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었던 만큼, 낯설면서도 배움이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또한,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법 지식을 법률 봉사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체화함으로써, 향후 희망하고 있는 법조인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자 했던 초기의 봉사활동 신청 동기를 조금이나마 실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가을학기 필수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비롯해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판결문 리서치 등에 참여하였는데,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 및 소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경우,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여러 현안 및 정책 이슈를 살펴보았다. 사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정감사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있게 들여다본 적은 없었고, TV 뉴스 혹은 기사를 통해 주요 내용을 정리해 놓은 요약본 정도로만 접해왔던 터라, 실제 국정감사의 진행 방식과 쟁점을 직접 파악해보는 경험은 더욱 새롭게 다가왔다.

피감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었던 10월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홈플러스 사태', '배달플랫폼의 갑질', '해외기업의 횡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하도급업체에 대한 홀대' 등이 주요 국정감사 이슈였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하고자, 보다 많은 관계인들을 출석하게 하여 심층적인 증인 심문도 진행하였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가장 처음 들었던 느낌은 실망감과 회의감뿐이었다. 감사위원인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질의 태도를 보여주었던 반면, 해당 질의에 답변하는 피감기관 및 증인들의 태도는 상당히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다', '다음에 검토해서 개선하겠다' 등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들로 그저 지금 닥친 상황만을 모면

하고자 하는 모습이 계속되니, 과연 국정감사가 본래
의 취지에 부합하게끔 잘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더해, 피감기관과 증인들이 해당 사안을 안일하게 인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그 책임감과 경각심이 유지될 수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피감기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이었던 10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항 파업', '항공 안전', '리모델링 예산', '연예인 혼잡', '지방공항 적자 및 저이용률' 등이 주요 국정감사 이슈였다. 해당 국정감사 현장은 이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달리 비교적 이상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감사위원들은 당근과 채찍을 섞어가며 질의함으로써 원하는 답변이 도출되도록 잘 유도하였고, 피감기관들은 감사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에는 이전의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모니터위원이었던 나에게까지 잘 전해졌던 것 같다. 이처럼 질의·응답 과정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정감사가 단순한 감시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형사사건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판례(2023도 8603)와 민사사건인 유언효력확인의 소 판례(2023다 217534)의 두 가지를 다루었다. 통신비밀보호법 판례에서는 '당사자 간의 혼인 관계 파탄 시점'과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다는 것의 정의'가 해당 사건에서의 핵심이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분명히 정리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만으로는 '대화'의 정의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적 정의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법원이 단순히 법조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언어적인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유언효력확인의 소 판례에서는 '녹음에 의한 유언 원본 파일의 부재가 유언의 유효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사건에서의 핵심이었다. 사본 파일이 원본 파일과 동일한지 판별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검인 조사, 디지털 포렌식 감정, 해시값 조사, GPS 추적 등 편집 및 조작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그 결과 파일의 동일성이 입증되었다. 비록 1심에서는 편집 및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과 3심에서는 법원에서 직접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결백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보아, 법원이 단순한 주장이나 추측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공정한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2025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그간 이론적·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법률이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아가 법률이 우리 사회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몸소 체득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향후 법률 실무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 서강대학교　남 ○ 석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로스쿨 진학을 꿈꾸고 있던 나의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막연히 법조인을 꿈꾸는 평범한 대학생이던 나는 단순히 공부를 하고 성적을 얻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의미있고 나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고 있었다.

학부생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제한적이기에 봉사활동과 같이 큰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활동 위주로 찾아보았고,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그 중 가장 눈에 띄었다. 국정감사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등 다른 곳에서는 잘 할 수 없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망설임 없이 곧바로 신청해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준법정신을 가져야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지만 평소에 내가 있고 살던 점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오티를 통해 그 점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단순히 봉사시간, 스펙을 쌓기 위한 대외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느끼고 누구보다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활동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활동을 시작해보니 역시 생각보다 단순한 활동들은 아니었다. 나는 헌법 번역봉사, 국정감사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총 3가지 종류의 활동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로 번역봉사의 경우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을 통한 번역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조문과 어색하지 않은 법률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헌법은 그 나라의 토대가 되는 법으로서 그 나라의 발전 과정과 민족적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번역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 대한 배경지식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꽤나 많은 노력을 요하는 활동이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평소에 익숙한 국가가 아닌 국가의 배경과 헌법 내용을 정리하면서 법이라는 것이 단순한 입법과정을 거쳐서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가 담겨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헌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이번학기 필수활동이었던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사실 나는 활동 전 국정감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몰랐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활동이니만큼 이제는 국정감사와 국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제도가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 국민의 주권 실현이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이상적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다는 것 역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점을 발견하는 것 역시 분명히 의미 있는 과정이었고, 우리 국정감사 위원회가 좀 더 감정보단 이성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다는 개선 필요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부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를 듣고 있기에 형사 판례를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하면 수업 내용과 연계해서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어떤 용어를 쓰는지 학습을 할 수 있었다. 물론 내가 찾는 내용이 전부 인터넷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기본적으로는 판례에 대한 정보를 전부 찾을 수 있었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공부를 하는 느낌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판결문을 여러 개를 찾아보다 보니 자주 등장하는 어려운 법률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들을 학습하는 것 역시 실용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더불어 판결문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결론이 나는지, 어떤 논리로 재판부가 판단을 이어가는지 따라가다 보니까, 기존에는 막연했던 '법적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 조금씩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양이 많아 막막했던 판결문들의 흐름이 잡히기 시작했고, 내가 정리한 내용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니 기분이 좋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활동들이 대학에서 내주는 과제처럼 의무적으로 해치우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드는 데에 일조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법률적인 사고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는 것 역시 도움이 되었지만 그러한 학습의 과정을 거침과 동시에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했다는 생각이 드니 봉사활동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일부 활동의 경우 꽤나 오려 걸려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시야가 넓어지고 앞으로의 공부, 사회인이 되기위한 준비과정들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단순히 로스쿨에 진학하고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라면 자유 민주주의 정신과 준법정신을 다시금 깨닫기 위해 한 번쯤 꼭 해보면 좋을 유익한 활동이었다. 특히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쯤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활동을 연맹에서 제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 다음학기에도 봉사활동을 기꺼

이 신청할 예정이다.

○ 국민대학교 노 ○ 영

9월 26일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법률연맹 가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있는 빈칸을 두 교재를 참고하여 채워넣으면 참석한 것으로 인정되는 형식이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로 첫번째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다양한 대법원 판례 중 깊이 조사해보고 싶은 판례를 찾아, 그 쟁점, 사실관계, 전문, 각 법조인들의 이력 및 판례 관련 기사를 리서치해 문서로 작성하는 활동이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법률이 활용된 판례나, 최근 이슈가 된 판례들을 찾아보면서 선정에 있어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했지만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판례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당황스러웠던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봉사활동 방법이 자세히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판례를 받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다룬 사건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말소에 관한 사건이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를 되새기는 판결이었다. 우리나라 등기 제도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무효라면 당해 등기는 무효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한 특징은 원고의 경우와 같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의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아 매도인의 권리르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요즘, 특히나 많이 이슈가 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분석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다보니, 쟁점을 찾고 비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판결문을 여러 번 살펴보고, 직접 사실관계를 대입해 정리하면서 쟁점을 차차 정리해나갈 수 있었다. 또한 용어해설을 하면서 대중들이 어렵게 느낄만 한 법률용어를 찾아보고, 그 의의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활용되는지, 반대개념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자세히 작성하다보니 단어 하나 하나를 이해하게 되면서 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다. 이렇게 첫 번째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총 5번 진행하게 되었다. 법학부에 재학하고 있기도 하고, 법을 진로로 하다보니 판례에 많이 친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많이 진행하게 되었다. 두 번째 사건은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의 사건이었다. 두 번째로 하는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라서 그런지 처음보다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가사사건을 부넉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소송법상의 절차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던 판결이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금전의무 중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즉,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확정된 양육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과거의 금액만 이행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미래의 양육비는 그 시기가 도래해야 비로소 '이행하지 않은 의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강제이행을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해 판결은 가사사건에서의 절차의 중요성을 설시하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로는 대여금과 관련한 사건이었다. 당해 판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표현대리의 적용여부였다. 특히 원고 측에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하고, 금융거래에 있어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와의 위탁관계를 이용해서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리서치를 3번째로 진행하다보니 점점 능숙하게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요지를 작성하는 데 부담이 줄어든 것 같다고 느꼈다. 하면 할 수록 다양한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볼 수 있어 자기발전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등과 같이 다양한 판결문을 보면서 쟁점이 계속해서 바뀌는 판결이 있는 반면, 이처럼 비슷한 쟁점으로 계속 이어지는 판결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총 5번의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서는 가을학기 봉사활동의 필수 활동이었던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국정감사모니터링 봉사활동은 처음이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질답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정치적 대립의 장면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신기하기도 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포함 총 48시간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지금껏 했던 봉사활동들 중 가장 발전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봉사활동이었다. 다만, 더 많은 종류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2가지 봉사활동에 그친 것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에도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에 지원할 예정이다.

○ 연세대학교 모 ○ 윤

2025년 가을학기 봉사활동으로 나는 스와질랜드, 스웨덴, 시리아 아랍공화국, 탄자니아 총 4개국의 헌법 번역 봉사를 수행했다. 또한 형사재판 모니터링과, 행정안전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링도 진행했다. 총 30시간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느낀 점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헌법 번역 봉사활동의 경우, 지난 학기부터 꾸준히 해왔던 봉사활동이라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하였던 것 같다. 여러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법률 체계와 문화적 배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의 법과 제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었고, 법률 영어 용어도 익힐 수 있었다.

모니터링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 가장 처음으로 한 모니터링 봉사활동은 형사재판 모니터링이었다. 학교에서 가까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가 제11형사부의 형사재판을 방청하였다. 실제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검사와 변호사 간의 법적 공방이 매우 흥미로웠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수행했다. 나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선택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실효성 있는 비판과 실증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며,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태도가인상 깊었다. 일부 의원들은 기본 매너를 지키지 않고 질문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예의 있게 진행하며 국정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국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실질적으로 법과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다. 다양한 법률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경험들은 나의 시야를넓혀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률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명지대학교 박 ○ 경

2025년 가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법과 정치를 글로 익히는 것을 넘어서, 실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전공수업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경험이라 더욱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스웨덴 헌법 번역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는데, 번역을 하기에 앞서 스웨덴의 정치 구조, 헌법 구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전이 1개인 데에 반해 스웨덴 헌법은 정부조직법, 왕위계승법, 언론자유법,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법으로 4개의 헌법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국왕이 의례적으로만 존재하는 의원내각제 체제인 점 등 스웨덴이 어떤 국가인지 조사하는 과정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4개의 헌법 중 정부조직법을 번역하였는데, 스웨덴어

백과사전과 스웨덴의 의회 입법절차를 찾아보며 번역하였습니다. 번역기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스웨덴 의회 입법 절차를 이해하여야 알 수 있던 단어들도 꽤 있어 신선함을 느끼면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와 법제가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스웨덴이 어떤 국가인지 공부할 수 있었기에 색다르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에서는 실제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각각 재판에서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법원에 들러 재판을 방청해 본 적이 없어 다소 긴장하였으나, 이내 침착하게 앉아서 필기하며 재판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판사는 차분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임하였고, 증인신문시 증인이 어려워하는 질문들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며 원활하게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할 증거로 작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피고인을 적극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피고인을 열정적으로 변호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재판장에서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심적인 안정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감을 실감하였습니다. 이번에 모니터링한 형사재판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어떤 자세로 임하여야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법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민주 시민으로서 재판을 모니터링 한다는 점에서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던 활동은 이번 학기 주요 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의원별로 어떤 질의를 하는지, 질의시간은 잘 지키는지, 질의 매너가 어떠한지, 의원장은 한 정당에 편향적인지 등 관찰하며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점은 정쟁에만 다소 집중하여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원장 또한 은근히 한 정당의 의원 편만 들거나, 자신의 반대 당 의원에게만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올해의 국정감사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쟁에만 앞선 나머지 국정감사의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막막하였고, 놓친 것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리나라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은 어떤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 국정감사의 장점과 보완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활동을 통하여 전공수업 시간에 배웠던 법적 이론을 넘어 우리나라의 법제와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번 학기에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시간에 쫓겨 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점입니다. 다음 학기에는 시간을 잘 분배하여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에 임하여 귀중하고 의미 있는 겨울 학기를 보내고 싶습니다.

○ 동국대학교 박 ○ 우

저는 2025-가을하기에는 국정감사모니터링 봉사활동, 2025-겨울학기에는 국내외의 사법제도, 헌법등을 번역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사회 구조와 제도의 작동 방식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모니터링 봉사활동에서는 국회의 감시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질의, 응답 과정을 분석하며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답변과 실질적인 문제 제기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눈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이 민주주의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수행한 사법제도 및 헌법 번역 봉사활동은 시야를 국내에서 국제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조항을 비교하고 번역하며 법 체계가 사회의 역사와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법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요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 용어의 엄밀성과 문맥 해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의 제도를 접하며 우리 헌법과 사법제도의 강점과 한계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봉사활동 모두 공공성과 책임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사회 문제를 피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민 참여와 법 제도의 연결 고리를 이해하게 되면서 공익 분야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법과 제도가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실천적 경험은 제 전공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론으로 배운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 학문적 성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번 봉사 경험은 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진로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박 ○ 위

먼저 한 학기 동안 법률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뜻깊었던 시간이었고, 매번 메일 보낼 때마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담당자분과 법률소비자연맹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금까지 학부 수업, 학회 등을 통해서 얻은 이론적 지식을 시민사회와 현실에 적용해보고, 삼권분립을 담당하는 각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부여받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에서 수행한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대법원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경우 국회의 각 위원회 중 일부를 선정하여 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국정감사의 내용을 뉴스나 영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접하곤 했는데, 본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하나의 국정감사 일자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모니터링하여야 했기에 고된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국정감사의 전과정을 검토하다보니 잘 알지 못했던 사회적 이슈를 접함과 동시에, 기존의 알고 있었던 정책이나 사건의 동향을 알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턴 관련 감사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 다크패턴은 지난 학기 행태경제학 강의를 수강하며 소논문을 작성했던 주제라 모니터링 과정 중 좀더 흥미를 가지고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본 감사에서는 빗썸 기업의 다크패턴을 지적하며 향후 공정위의 대응을 질의하였는데, 향후 공정위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문을 넘어, 해당 사건의 1심, 2심의 전 판결문을 검토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분석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헌법에 관심이 많아 관련 강의 수강 및 학회 활동을 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주로 접하였습니다. 본 활동을 통해 공정위 사건, 민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판결문을 접하며 법원의 위법성 판단 기준, 법률 해석 등을 학습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일부 하급심 판결문에서 사실관계가 생략되어 있거나 판결요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자신만의 언어로 채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되짚어볼 수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평소 사법부의 영역이 일반인

이 접근하기 쉽지 않고, 그들의 판단과 법리가 대중과 괴리된 채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앞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상어로 풀어서 병기하고, 보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판단 과정 서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기를 병행하면서 본 봉사활동을 하여야 했기에, 이번 학기 수행한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대법원 판결문 리서치 이외에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시민사회를 위해 제가 가진 전문성과 성실성을 토대로 봉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톨릭대학교 백 ○ 은

대학교에서 법학을 배우면서 항상 이론을 넘어 법률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체감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법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부터 법정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지만, 특히 가을학기에만 진행되는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흥미로워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읽으며 '국민을 법률 소비자로 본다'는 독특한 관점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사법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전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봉사활동에 즐겁게 임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법률이 작동하는 실체를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국정감사 모니터링입니다. 저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다음날에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각 행정기관의 장을 비롯하여 기업의 총수 등을 불러 법 준수 여부와 국민에게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질의하는 모습에서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실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과방위에서 제기된 글로벌 플랫폼의 법적 지위 제고, 과징금 관련 질의, 또는 대기업 총수 비리 질의 등을 보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밤 12시가 넘는 늦은 시간에도 제주도에서 온 증인을 위해 발언권을 주는 모습에서는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가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사위든 과방위든 국회의원이 소위 '정치적' 이슈를 위해 '막말'*을 하거나 했던 질의를 반복하는 모습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과방위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상대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퇴장당하는 모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증인의 입장에서도 국회의원의 질의에 돌려 말하거나 발언을 따르지 않는 자세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상호 간이든 국회의원과 증인 간에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 준수라는 가치와 함께 국정감사의 권위가 더욱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중대재해 관련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2025도10267 판결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이 많고 사건의 쟁점이 다양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힘들었지만, 하나씩 정리되는 쟁점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중대재해는 SPC, 쿠팡, 건설회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강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되었습니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경영책임자에게도 처벌이 가능하며 법인에게 최고 50억 원의 벌금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중대재해의 특성상 시간적, 공간적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한' 처벌이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법인에게 평균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선의 벌금이 선고되었던 현실 속에서, 제가 리서치한 이 판결에서는 이례적으로 법인에게 2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니, 경영책임자 등이 1) 기존에 계속해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 하도급업체에게 촉박한 시간과 안전보건 조치 비용의 책임을 넘긴 점 등, 명백하게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안전 대신 시간과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의 판결은 법인의 운영에 영향을 줄 정도의 벌금을 선고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걸맞은 적합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부터 판결문 리서치까지, 모든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참여하면서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진지한 자세로 임했던 경험은 이번 가을학기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학문적인 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실체적으로 작동하는 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송 ○ 은

법학을 전공하거나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분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처음에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활동을 살펴보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몰랐을 법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단순히 타인을 위한 봉사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처음 진행한 봉사라 부족한 부분도 많고 다양한 활동을 하지는 못했으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매번 꾸준히 시행하고 싶다고 생각되어 겨울학기 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을 봉사의 경우, 학기와 병행되는 특성상 바쁜 일정이 많아 가장 하고싶던 '법정 모니터링'을 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제가 처음 재판을 방청했을 때의 경험과 비교하여, 지금은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비교하며 모니터링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법에 무지한 경우 본인의 사건임에도 단지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많이 속상하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경우가 약 5년 전이라, 최근에는 기조가 많이 바뀌었는지, 혹은 그대로라면 변화되어야 한다는 코멘트를 남겨보고 싶었으나 이는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을학기를 통해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의 경우, 시간이 길고 처음 해보는 탓에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으로서 국민의 직접 대리인이 적절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자체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보다 당의 이익을 위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을 보며 국회의원의 필요성에 관해 고민이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대신 일을 해줄 사람'의 개념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선출한 자들이, 국민이 아닌 정당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자라면 존재의 의미를 지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이후에 진행될 국정감사의 경우 그 존재의미를 성실히 이행하고 실현하는 국회의원들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판결문 리서치 활동의 경우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진행하였습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평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간단한 방식으로 다양한 판례를 평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타당하고 정당한 논리를 바탕으로 결론을 지은 판례도 많았으나, 일부 형사재판의 경우 박약한 법리와 성인지감수성·국민의 법감정과는 배치되는 듯한 판결도 등장하여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지 여러 번 읽고 한참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분석하고 코멘트를 남기는 능력이 부족하나, 겨울 학기에는 형사/민사 판결문 외에도 행정/헌법재판소 판결 등

다양한 분야의 판결문 리서치 진행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주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 제 활동이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법률 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동국대학교　신 ○ 우

1학기에 진행한 언론, 법정, 의정 모니터링은 '기록'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다양한 층위를 품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준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실을 정확히 옮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은 사실의 나열을 넘어, 언어를 통해 복잡한 현실을 해석하고, 그 안에 숨은 질문을 드러내는 작업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언론 모니터링에서는 기사 한 줄이 여론과 시장, 정책의 흐름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생생하게 마주했다. 특정 단어 선택이 감정선을 자극하거나, 제목의 한 문장이 전체 논조를 왜곡하는 상황을 보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임을 새삼 느꼈다. 또한 보도 과정에서 빠져 있는 이해관계, 맥락, 수치의 선택은 곧 독자의 판단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다. 언론의 서술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을 관찰하는 일은, 정보를 소비하는 나 자신 역시 얼마나 쉽게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지를 일깨웠다.

법정 모니터링은 분위기 자체가 달랐다. 절차가 쌓여서 하나의 판단에 도달하는 법정은 언어의 무게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피고인의 말투, 증인의 일정한 망설임, 판사의 짧은 질문까지 모두 기록의 대상이 되었고, 그 작은 조각들이 사건의 구조를 해석하는 단서가 되었다. 특히 법률 문구와 실제 사건 사이에는 항상 '해석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 거리 안에서 판례가 쌓이고, 사회적 규범이 조정되며, 법은 천천히 현실에 맞춰 호흡을 바꾼다. 법정 모니터링은 그 미세한 변화의 결을 듣는 경험이었다.

의정 모니터링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의원들의 질의는 정책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이며, 답변의 한 문장이 향후 예산과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형식적으로 보이는 회의록 뒤에는 이미 여러 이해관계의 압력이 중첩되어 있었다. 의원 개인의 관심 분야, 부처의 우선순위, 지역의 민원까지 모두 발언에 녹아들어 있었고, 이를 기록하며 각각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책 논의의 지형을 형성하는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1학기 경험은 이후 국정감사 과방위와 법사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미 언론, 법정, 의정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기록자가 가져야 할 균형 감각'과 '문장 뒤의 맥락을 감지하는 능력'을 훈련했던 덕분이었다. 과방위에서는 기술과 규제가 충돌하는 경계면이 선명하게 보였다. 데이터 독점 문제, 플랫폼 책임, 방송 공공성 등 빠르게 변하는 산업을 따라잡으려는 입법의 속도가 화두였다. 반대로 법사위에서는 법률해석의 일관성과 공정성이라는 오래된 과제가 중심에 있었고, 문구 하나가 정책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한편,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 관련 영문 문서를 번역하는 봉사 활동은 모니터링과는 다른 축에서 언어의 힘을 실감하게 만든 경험이었다. 각 문서에는 그 나라의 제도, 경제, 문화가 스며 있었고, 겉으로는 비슷한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온도와 의미가 달랐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전달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한다'는 점에서, 이는 모니터링과 닮아 있었다. 기록과 번역 모두 정보를 정밀하게 다뤄야 한다는 공통의 책임을 요구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언어의 선택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는지 다시 배웠다.

결국 1학기 모니터링 경험은 기초였고, 국정감사와 해외 번역 활동은 확장된 응용이었다. 다양한 공간에서 정보를 관찰하고 다듬는 일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며, 저는 점점 더 한 가지 사실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맥락을 충분히 담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는 어떤 분야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작은 문장 하나가 정책을 움직이고, 한 단어의 선택이 타인의 판단을 바꾼다는 걸 직접 경험한 이상, 앞으로 제 진로에서도 이러한 감각을 유지하며 더 정교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싶다.

○ 인하대학교　신 ○ 호

2025년 가을학기까지 1년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하며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매 학기 필수로 지정한 활동들은 다른 활동에 비해 시간과 정성이 많이 투여되어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제가 얻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의 경우 국정감사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필수 활동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해서 각종 언론에서 진행과정이나 이슈가 된 감사위원들의 발언 등을 짧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으나, 국정감사 과정 전체를 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작년 겨울학기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법률소비자연맹에서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어서 새로운 활동을 경험한다는 사실에 기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 전에 언론에서 정치적인 분쟁과 파면된 전 대통령 관련 문제 등으로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원 외 관련 기관들의 국정감사를 제일 먼저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위, 과기위, 행안위 중에서 필수로 하나 선택해야 하여 행안위를 선택하였고, 날짜가 연속으로 있으면 좋을 듯하여 행안위 다음 날인 10월 15일에 진행되는 국정감사 중 평소 한 번도 관심 있게 들여다 본 적이 없는 위원회였던 농축해수위의 국정감사를 선택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총 3차례의 국정감사 전체를 모니터링하면서 언론에는 항상 자극적이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법한 발언들만 초점을 맞춰서 보도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하고 유의미한 부분들이 많이 감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발언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감사위원들 역시 일시적으로 주목 받기 위하여 고성방가하고 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과 비난하는 것을 삼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시청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모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사를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한 번 다뤄져야하는 내용들을 위원들이 짚어내는 등 진정으로 감사에 임하고 있는 위원도 있음을 보았기에 이런 위원들이 더 주목을 받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매 학기 다양한 봉사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정리하여 제공해주시고 모든 메일 하나하나 확인하여 답장 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법률소비자연맹에서만 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활동의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울대학교　안 ○ 규

2025년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바로 지난 학기 봉사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막연히 알고 있던 정치, 행정, 법제도를 실제로 체감하고, 그 작동방식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활동을 처음으로 수행하며,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가장 인상깊었던 활동은 정무위원회 및 과방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국정감사는 뉴스 보도를 통해 단편적으로 접해왔을 뿐, 직접 방청하거나 그 과정을 면밀히 관찰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실제 국정감사를 지켜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슈가 다뤄지고 있었고, 국회의원들 또한 매체를 통해 비춰지는 이미지와 달리 개별 사안에 대해 상당한 준비와 분석을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의 장이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과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주적 장치라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던 점은 제 전공과도 맞닿아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기존에 관련 분야에서 잘 알지 못했던 정책 이슈와 제도적 쟁점을 접할 수 있었고, 국정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구조와 핵심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찰에 그치지 않고 기록과 분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학습 효과 또한 컸습니다.

이와 함께, 에스와티니 헌법 번역 봉사활동도 수행했습니다. 헌법 번역은 언제나 각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었고, 이번 번역 역시 단순한 문장 해석을 넘어 법적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신중함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학기에 경험한 봉사활동이었기에 조금 더 능숙하게 봉사에 임할 수 있었고, 낯선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며 법 제도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생각해 볼 수 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 전반을 통해 의정 감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며 느낀 것은 이러한 활동 하나하나가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러한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수록, 민주주의와 법치 또한 더욱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경험을 토대로, 법과 제도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꾸준히 관찰하며, 공익적 관점에서 이를 성찰하는 자세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안 ○ 나

[1] 2025년도 가을학기에 저는 총 39시간 49분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스웨덴 헌법과 에스와티니 (스와질랜드) 헌법 번역 봉사, 그리고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번역 봉사와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라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폭넓은 시각을 기를 수 있었고, 특히 제가 가진 역량을 사회적 가치로 연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느꼈습니다.

[2] 먼저, 스웨덴 헌법과 에스와티니 헌법 번역 봉사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활동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헌법을 직접 번역해 보는 일은 생소했지만, 그만큼 새로운 배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 외 국가들의 헌정 체계를 들여다보며 '헌법이라는 틀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반영되는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 언어 능력을 사회적인 기여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번역이라는 역할이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적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깨달은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3] 이후에는 이번 학기 필수 봉사인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총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모니터링했는데, 두 상임위가 다루는 이슈의 성격이 달라 그만큼 넓은 분야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뉴스로 접했던 조지아 사건과 캄보디아 관련 이슈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직접 보고 듣는 경험이 흥미로웠습니다. 반면 국토교통위원회는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LH 운영 문제나 시설물 사고 등, 보다 일반생활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 '이런 이슈들도 이렇게 중요한 정책 논의의 대상이 되는구나'라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국정감사는 번역 봉사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배움의 깊이도 컸습니다.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 태도, 자료 준비 수준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근거 기반의 분석과 명확한 논리로 정부를 견제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었고, 반대로 다소 형식적이거나 정치적 의도로 보이는 질문을 던지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비교하며 '좋은 의정 활동이란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이번 학기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실제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번역 봉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법체계를 이해하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이슈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하게 해주었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했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양 ○ 서

2025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을 마쳤다. 2023년 이후 오랜만에 하는 활동이었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뜻깊고 의미 있는 활동들이었던 것 같다. 법조인을 진로로 삼고 있기에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들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 활동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시공간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재택활동으로도 타 봉사 활동에 못지 않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이 대부분이어서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다. 봉사 활동에 대면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나 그럴 만한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활동을 꼭 추천하고 싶다.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은 국회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다. 사실 나에게 국정감사는 너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져 이전에는 한 번도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활동 덕분에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내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았다. 평소에 자발적으로 만들어 내기에는 쉽지 않은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러한 경험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몫을 다 하고 있는지,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특히 좋았다.

이번 학기에 가장 많이 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다. 판결문은 이전에도 여러 번 읽어 본 적이 있어 활동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가 판결문을 처음 읽어 보았을 때를 떠올려 보면 긴 문장과 생소한 단어들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느꼈던 기억이 난다. 내가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 좋았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판결문이 좀 더 친숙해졌으면 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에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에 대한 전말을 뉴스 기사 몇 줄만 보고 기억하게 된다. 그러나 그 뒤에는 무수히 많은 사건 기록과 무수히 많은 논리와 무수히 많은 판결 과정이 존재한다. 자극적인 데에 치중한 뉴스 헤드라인 한 줄이 아니라 판결문을 모두 정독하고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한 활동이 그러한 결말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번 학기에는 두 나라의 헌법 번역도 시행했다. 번역은 항상 어려운 일이지만 그 나라의 배경만 알아둬도 훨씬 좋은 법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먼 나라여도 법적인 용어들은 공통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냥 어렵기보다는 나름 재미도 있었던 활동이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 봉사 활동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채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보고 싶다.

○ 경북대학교 여 ○ 림

가을학기 동안 여러 활동을 통해 봉사에 참여하면서, 국가 제도와 행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을 처리하는지, 한 가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지 지켜보면서, 평소 뉴스로만 접하던 국가 시스템을 '현장감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아는 것을 넘어,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국정감사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복잡한 절차라는 것이었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전부터 부처별 현황자료와 예산 집행 내역, 정책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질의를 준비한다. 질의 내용도 단순히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묻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이 법과 원칙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이 계획대로 사용되었는지,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또,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이 모두 실제 국민의 삶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조세·재정 같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분야부터, 주거·교통·안전 등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들까지 폭넓게 다뤄지는 것을 보면서, 정책 하나하나가 국민의 생활수준과 직결된다는 점을 체감했다. 국회의 논의 과정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절차라는 것도 모니터링을 하며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봉사활동은, 시민이 국가 운영을 지켜보고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계기였다.

가을학기 후반부에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이 책 속의 조문을 넘어, 실제 사건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해석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같은 사건이라도 재판 단계가 올라갈수록 판단과 논리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여러 재판부의 판단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고, 어떤 부분에 더 비중을 두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법적 판단이 단순히 규정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작업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섬세한 사고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다.

또,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행정상의 문제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어떻게 정리되고 해결되는지 살펴보는 과정도 흥미로웠다. 판결문을 직접 읽고 정리하면서, 법을 공부한다는 것이 단순히 개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사고방식을 기르는 작업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서로 다른 재판부의 논리를 따라가며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을까"를 고민해 보는 과정은, 앞으로 법 관련 공부를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을학기를 돌아보면, 이번 봉사활동들은 나에게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열어준 시간이었다. 국회와 행정기관, 그리고 법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찰한 경험은,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넓혀 주었다.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이번 경험들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와 현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야와 더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고 싶다.

○ 이화여자대학교　오 ○ 린

이번 법 관련 봉사활동은 내가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법'이라는 개념을 현실의 문제로 다시 바라보게 만든 경험이었다. 이전까지 법은 교과서 속 이론이나 시험 과목에 가까운 존재였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법이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법 관련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법이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항상 의식하며 살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 곳곳에 기본 질서처럼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질서가 무너질 때 발생하는 혼란을 떠올려보며 법의 존재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법과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 경험이었다. 온라인으로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정치적인 장면으로만 여겨졌던 국회와 감사 과정이 사실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각 부처와 기관이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지,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치밀해 보였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질문 하나하나에 담긴 의도였다. 의원들의 질문은 단순한 비판이나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검증처럼 느껴졌다. 하나의 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 속에서 법과 제도가 어떻게 현실과 연결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법과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영역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다. 법은 정치적 논의 속에서 제정되고, 정책은 법을 근거로 실행된다는 사실이 실제 사례를 통해 와닿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뉴스를 볼 때 국정감사를 다소 멀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는 중요한 장면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법 관련 활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법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법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은 오히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실은 법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만 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법에 대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했다.

또한 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호와 조정의 장치라는 점도 느끼게 되었다. 사회 속 갈등을 무조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기준을 통해 조정하고 정리한다는 점에서 법은 사회의 안전장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법학과 진로에 대해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단순히 "법이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보다는, "법이 필요하다"는 감정이 먼저 들기 시작했다.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활동은 법이라는 분야를 처음으로 현실적으로 마주했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 법은 교재 속 문장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회의 언어라는 사실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는 법을 단순히 '공부해야 할 지식'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창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 이전보다 뉴스 하나도 다르게 보였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법 관련 봉사활동은 나에게 법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였다.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내가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 연세대학교　오 ○ 린

법은 단지 교과서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규범이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고 인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살아 있는 체계라는 것을 직접 깨닫게 해 준 경험이 바로 이번 법 관련 봉사활동이었다. 법번역 활동과 국정감사 참여는 저에게 법을 '공부의 대상'이 아닌, '현장의 언어'이자 '사회적 책임의 도구'로 인식하게 만든 계기였다.

먼저 법번역 활동은 제가 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체감하게 만든 경험이었다. 법은 결국 '전달되어야만 의미를 가지는 언어'라는 점에서,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하나의 책임 있는 법적 행위임을 느끼게 되었다. 저는 법률 문서, 행정 자료, 제도 관련 안내문 등을 번역하며 법적 개념 하나, 표현 하나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체감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법 얘기가 아닌 일상적인 표현처럼 보이는 문장조차도 법적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번역은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문장의 법적 의미를 이해한 뒤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을 찾아내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집중력과 책임감을 요구했다.

이 활동을 통해 법의 본질이 공정성 이전에 '접근성'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법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한다면 법은 보호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 법번역은 바로 이러한 장벽을 허무는 작업이었다. 번역된 문서 하나가 실제 생활에서는 중요한 권리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가 맡은 번역 한 문장이 단순히 과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과 권리에 연결된 일'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국정감사 참여 경험은 이러한 법의 원리가 실제로 국가 운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였다. 언론이나 뉴스에서는 '국정감사'라는 단어를 자주 접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영상에서 마주한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치 행사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헌법적 기능이라는 점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의원들의 질의 과정을 지켜보며, 질문 하나하나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문제 제기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숫자 하나, 통계 하나, 문서의 표현 하나까지 철저히 검증하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모습에서 법이 단지 시민을 규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라는 본래의 기능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질문이 던져지는 것을 보며, 법은 단일한 해답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고 조정되는 장이라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저는 법이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법이 존재하지 않는 권력은 책임을 지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쉽게 오만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와 같은 제도를 통해 권력은 공개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 두 경험을 통해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법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은 언어, 정치, 행정, 윤리, 그리고 시민의식과 끊임없이 맞물려 작동하는 사회적 장치였다.

○ 연세대학교　오 ○ 연

스타트업씬의 사법적 리스크를 알아보다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탐구 주제는 '새 정부는 창업 생태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였다. 새롭게 임명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스타트업 관련 부처의 핵심인력이 대거 교체되면서 이번 정부의 벤처·창업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정책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를 함께 수행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아쉬움이 컸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정쟁 중심의 공방이 주를 이루었다. 일부 의원들은 핵심정책 논의보다는 상대 정당 공격에 시간을 할애했고, 그 결과 창업·기술정책 논의는 흐려졌다. 더욱이 증인으로 출석했음에도 단 한 번의 질문도 받지 못한 기관장이 다수 존재해 '정책 검증의 장'이라는 국정감사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비교적 차분하고 실질적인 안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중기부 장관의 임기가 짧아 부처 현안이나 현장 애로사항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특히 스타트업을 둘러싼 규제·세제·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 변화의 신호를 읽기 어려웠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특허 소송과 관련된 스타트업의 구조적 리스크였다.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도용당하거나 침해당해도, 높은 소송 비용과 긴 재판 기간, 입증 책임의 불균형 때문에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대기업과의 분쟁에서는 법률 자문이나 증거 수집 능력의 차이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니, 법·제도적 취약성이 창업 생태계의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정책은 단순히 자금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에 그쳐서는 안 되며, 법제적 보호 장치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함을 느꼈다. 창업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지만, 그 위험이 제도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혁신생태계를 육성하려면, 스타트업이 법적 취약성 때문에 무너지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할 것이다.

○ 경희대학교　유 ○ 성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외국 헌법 번역 봉사라는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지원자의 입장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활동들이 나에게도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기재위와 농해수위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기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정치적 논의와 정책적 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각 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질의를 준비하고 조정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진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었고, 그들의 역할이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기도 함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외국 헌법 번역봉사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법률 텍스트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을 깊이 느꼈습니다. 특히 트리니다드토바고, 통가등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며 각국의 법체계가 어떻게 다르고, 그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헌법이라는 중요한 법률 문서를 번역하는 일은 단순히 텍스트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요구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번역이 끝난 후에는 법률적 정확성과 문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단순히 법적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과 정책의 실제적 적용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제가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법적 지식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 사회에 더 많은 가치를 환원하는 봉사활동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 서울대학교　윤 ○ 현

2025년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주요 일간지 사설 분석 활동은 그동안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던 정치와 입법 과정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해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특히 국회 농해수산위원회의 농협 국정감사는 농협 내부의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 구조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폭로하는 자리였다.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협동조합이 오히려 농협 간부와 직원들의 특혜와 이익만 추구하고 있으며 성과금 잔치 등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은 날로 악화되는데 견제하는 장치도 없었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공공조직은 너무나 쉽게 부패하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 모니터링 역시 정치적 권한과 공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다. 국감기간에 과방위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올리고 피감기관에 축의금을 편취하는 추태를 부리고도 책임지지 않으며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아 이 때문에 국감은 여러번 파행을 거듭하였다. 국정감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묻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자신의 비리에 대한 정치적 방어에만 집중해 감사의 본질이 흐트러졌다. KBS에 대한 감사 내용보다 추태를 폭로하는 야당과 비리를 감싸는 여당의 극한 대립만 기억에 남는 최악의 국감이 되어 버렸다.

이어 일주일간 주요 신문의 사설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신문은 정부 정책, 산업과 AI 인프라 문제, 정년과 일자리 등 국민의 실제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공적 방향을 제시했지만 어떤 언론들은 정치적 갈등과 감정적 언어로 지면을 채워 여론을 선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역할이 단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현실을 규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사회 인식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영향력임을 알게 되었고 사설을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내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감시와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직접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이런 현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이런 과정을 접할 시간조차 가지기 어렵다. 뉴스와 짧은 기사만으로는 국정감사의 핵심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정치인들의 민낯과 그들의 부적절한 행태도 모니터링과 같은 기회가 없으면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나는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짧은 시간이나마 내가 모르고 있던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대의 정치에 대해 지식을 쌓고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 더 많은 시민들이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사익을 위해 남용하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이고, 우리 사회는 더 투명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이번 경험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앞으로는 뉴스를 그저 소비하거나 흘려보내지 않고, 비판적으로 읽으며 사회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려고 한다. 비록 개개인의 행동은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작은 참여들이 모이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민주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번 활동은 그런 확신을 깨닫게 한 소중한 기회였다.

○ 경기대학교 이 ○ 현

대학생활동안 법학과를 복수전공하며 판결문을 살펴보는 일은 몇 번 있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처음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시청 해 보고, 평소엔 생각지 못했던 여러 주제들에 대해 식견을 넓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그에 관련해 소감문을 써 보고자 합니다. 최근 시장 질서의 공정성과 국가 미래 경쟁력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며,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한 내부적 윤리 과제와 외부적 전략 과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사회에 이바지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국정감사에서 겉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문제와 항공우주 산업이라는 이질적인 주제를 다루었으나, 두 국정감사의 내용을 정리하며 저는 권력과 이윤이 공익 및 안전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정무 위원회에서는 시장의 윤리적 거버넌스 부재가 초래하는 피해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구독 앱의 다크 패턴 문제는 단순한 상술을 넘어,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인지적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심리적 조작의 영역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기술적으로 봉쇄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반드시 규제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입니다. 더 나아가, 시장 권력의 남용은 오프라인 영역에서도 심각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실상 불법 대부업체 행세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에게 이중의 짐을 지우는 비윤리적 행태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행위 지적은 혁신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는 거대 기업의 횡포에 대한 경고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만연한 배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미흡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복잡해진 기업 구조를 따라잡지 못하며,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팠습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어도, 집행 기관이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춰 기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공정한 시장질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능동적인 공정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처럼 열정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이번 봉사활동이 제게 여러 문제에 다양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깨우쳐 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윤리적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은 제가 두 번째로 모니터링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다룬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자연스레 확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에서는 시야를 국가적 차원으로 넓혀 미래 산업의 전략적 접근과 에너지 안보라는 거대담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할 핵심 분야이나, 보고서에서 지적된 인재 등용의 문제는 이 산업의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내부 리스크입니다. 능력을 갖춘 국내 인재들이 고용의 불안정성과 비합리적인 대우 아래 현재 매우 중요하게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앞다투고 있는 우주산업같은 분야에서 외국으로 유출되거나, 연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기술력은 결국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장기적 투자와 함께,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에서 투명하고 성과 중심의 인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정감사장에서의 메시지에 저도 매우 동의하며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는 국익 보호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 관련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우려는 단순히 계약상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했습니다. 국제 협상에서 불리한 조항을 감수할 경우, 기술 종속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여러 중요 논점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경 및 안전 문제였습니다. 후쿠시마와 북한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폐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환경 재난의 위험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국제 공조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계속 그 부분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 만기가 도래한 원전의 재가동 안전 문제 지적은, 에너지 자립이라는 국가 목표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래 에너지 전략은 단기적인 전력 수급 논리가 아닌, 수십 년 후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적 책임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통감했습니다.

두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볼 때, 뉴스를 시청하거나 기사를 읽을때 매우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정보를 습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런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알지 못하며, 제가 보고 싶은 것들로만 골라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비판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여러방면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과 그 문제들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문제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답해나가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깨달음을 얻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봉사를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도록 더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대학교 이 ○ 비

저는 2025년도 가을학기 봉사활동으로 국정감사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를 선택하여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 감시', '법의 적용', '범죄 후 재활 및 사회 복귀 가

능성'이라는 거대한 삼각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과제들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국정감사모니터링를 통해 공공기관·행정·정부 부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정책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었는데, 국정감사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위태로운 위치에 놓여있는지 씁쓸한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국정감사는 공공의 이익과 투명성이라는 본래의 뜻을 잃고 정쟁이나 공방의 무대가 되어 감정싸움, 권력 다툼 등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었는데, 이는 단순 개인이나 특정 기관만의 잘못이 아닌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결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도와 시민 간 존재하는 간극을 절감하면서도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과 무력감을 느꼈으나, 제도가 공허한 약속으로 남지 않게 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고, 변화의 주체는 책임감을 갖는 시민. 기관, 정치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권력의 잘못을 드러내는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투명성의 창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국정감사를 하나의 정치쇼로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문제의 후속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시민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을 향한 감시보다도 더 구체적인 개인의 삶이 법의 잣대 아래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과거의 형사 사건이 이후의 재판, 형벌,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이 공평하고 엄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고, 그 일관성은 사회적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나, 동시에 사람은 변화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제도는 그런 변화와 회복까지 품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법은 처벌, 단절, 낙인, 배제라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제재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법은 처벌을 위한 도구임과 동시에 사회 안전, 회복을 위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는 처벌만으로 그 해결을 꾀하기 부족한데, 사회 구조, 복지 체계, 교육, 심리 지원, 재사회화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동함으로써 재범 방지, 재활, 사회 복귀를 실현해 나갔으면 합니다. 판례를 읽고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제도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마주하며 이를 메우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것은 불쾌한 감정이나 단순 지식이 아닌 무거운 책임감과 끝없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규정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정의롭고 인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감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요구하는 한 제도와 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며, 제도와 절차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 개선이나 책임으로까지 이어져야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하고, 자유를 위한 제언과 참여, 연대가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겁고 어려운 숙제이지만 법과 제도가 사람을 위한, 삶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뉴스를 소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제도와 정책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직면하고,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내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눔으로써 노력할 것입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이 ○ 지

우선 법률소비자연맹 2025년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마치면서, 개인적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 기쁩니다.

제가 참여한 봉사활동은 기후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에스와티니, 스웨덴 헌법 번역, 판결문리서치입니다. 특히 기후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리서치의 경우 사건번호 「2024도1309」, 「2020다247190」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동법에 관심이 있어 최근 5년 내 이슈가 된 노동법 판례를 찾았습니다. 리서치를 선정할 때 신경 쓴 점이 있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찾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법은 사회에 앞서 통용되는 인식 또는 사회의 합치를 무시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뒤늦게 적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누군가에게는 큰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태도를 학습하고 다소 어렵게 여겨지는 법률용어를 체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판결문리서치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정말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서치할 판결문을 직접 선정할 수 있다는 점도 제 관심사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국정감사의 경우 이번 가을학기 필수봉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를 보면서 내용을 정리할 때 주제가 겹치는 것을 보고 무엇이 현안인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법정치봉사단이지만 정치보다는 법에 흥미가 있어 국회활동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상태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모니터링을 하면서 국회 활동에 큰 흥미를 가지게 되어 봉사단 활동이 끝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습니다. 사회적 참여의식을 깨워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고려대학교　이 ○ 은

이번 가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헌법 번역과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법률이 사회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까지는 법학 공부가 주로 교과서적 지식 습득과 사례 분석에 머무르곤 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법률 문서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맥락 속에서 운용되는지를 현장감 있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1.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저는 이번 학기에 에스와티니, 트리니다드토바고, 통가 세 국가의 헌법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각 헌법은 국가별 정치체제와 역사적 경험이 조문 구조와 문장 표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비교하며 헌법 문서가 단순한 규범의 나열이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산물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는 직역에 그치지 않고, 우리 법체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고려하여 '등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기본권 규정, 권력구조, 절차 규정 등은 한 단어 선택이 법적 의미를 좌우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언어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법적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도구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리니다드토바고 헌법은 판례법적 전통(영국법)의 흔적이 강하게 드러나 긴 문장 구조가 많았고, 통가 헌법은 군주제적 요소가 언어 전반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번역하는 과정은 국제 헌법 문서의 다층적 성격을 학문적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내가 법학 공부를 지속하는 데 있어 '언어가 법적 의미를 규정하는 도구'임을 실감하게 해준 소중한 학습이었습니다.

2.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본 국가기관의 실제 모습

가을학기 필수 활동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각각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약 14시간의 국감 영상을 분석하며 국회의 질의 방식, 기관의 정책 집행 논리, 실무상 제약 등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는 치안 정책, 사건 대응, 조직 운영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세부 사안들이 다뤄졌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미처 전달되지 않는 현장 맥락과 자료들을 통해 경찰 조직이 정책을 집행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찾아 개선 방향을 요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국정감사의 본질적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 관련 국감에서는 수사 관행, 조직 운영, 인사 문제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일반 시민 사이에서 형성된 검찰에 대한 인식과 실제 제도 운영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제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두 국감을 모니터링하면서 국정감사가 행정부 견제를 넘어 국민의 권리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한 핵심 절차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3. 활동을 통해 얻은 성찰과 향후 다짐

이번 봉사활동은 법률지식이 현실 문제와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헌법 번역을 통해 국제적 법 문서의 구조와 언어적 특성을 배웠고,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기관의 실제 운영 방식과 정책 집행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앞으로 교육과 법학을 함께 공부하며,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석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 인식과 제도 운영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는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주권자로서 국가 제도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법률 소비자이자 예비 법조인으로서 올바른 감시와 참여의 태도를 유지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매우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실히 공부하고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 경희대학교　이 ○ 름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국회의 질의 과정이 단순한 비판이나 지적의 장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절차임을 실감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국정감사를 보지 않고, 기사나 화제가 되는 짧은 영상으로만 접하면서 국정감사는 그저 싸움의 장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원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질의 태도와 발언을 분석하면서 입법부도 사법부 못지 않게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고 쟁점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한 역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의 발언을 비교,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지니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의원들과 감사 대상기관의 대표자 역시 피로를 느끼겠지만, 객관성을 유지하며 질의, 답변하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헌법적 의미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즉 야당과 여당간의 대립이 더욱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만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모두 국민을 위해 힘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감시 활동에 국민들이 일시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법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판례 연구를 체험해볼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동안 법학 공부를 하면서도 시험 준비에 급해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법리나 주요 쟁점만을 읽었는데, 이번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1심부터 3심까지의 내용을 훑어보고,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을 직접 파악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제 생각보다 더 꼼꼼히 사례를 검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사 판결문 리서치는 형사사건과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실제 제가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사자의 입장에 이입되며 판례를 분석하였고,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어떤 논리를 선택하여 어떻게 주장을 펼쳐나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리서치부터는 형식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더 흥미롭게 판례를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법리를 읽어내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법리의 흐름이 이해되면서 성취감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법적 개념과 일상어 간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망'의 경우, 법에서 보는 기망행위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망행위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전달되고 받아들여지는지 까지 법원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법원이 형식적인 절차에 갇히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무고한 사람에게 형벌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법체계의 목적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판결문이 단순히 원고와 피고, 또는 검사와 피고인 간의 승패만을 담은 문서가 아니라, 법리를 해석하고 미래의 판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앞으로도 판례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리의 해석에 집중하며 분석할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 흥미를 느껴 재판연구원과 같은 법률 연구 직무로 제 진로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 고려대학　이 ○ 수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제가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법률 분야의 배경지식을 활용해, 우리 사회의 공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보고자 하는 주체적인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기에, 익숙한 활동 속에서 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특히 판결문 리서치와 번역 봉사는 어려움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정 감사 모니터링은 진행하며 어려움과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 과제 수행을 넘어, 제가 고민하며 공부한 지식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 동안 가장 즐겁게 진행했던 활동인 '판결문 리서치'는 저에게 남다른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소 흥미를 느껴왔던 형사소송법의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일반 시민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판례들을 쉽고 유익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말리아 해적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을 분석하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관한 특수협박 사건(2023도18812)'에서는 하급심과 대법원이 '휴대'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난해한 법률 용어와 복잡한 사실관계를 '연표'와 '쟁점 정리'로 시각화하는 과정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려 노력했고, 그 결과 스스로도 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의 언어를 시민의 언어로 번역하며 느낀 지적 희열은 봉사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반면, 이번에 처음 도전한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저에게 도전이자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장시간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고,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니터링은 제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 대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에서 보여준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저는 국정감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뉴스로, 클립으로 화제가 되어 돌아다니는 자극적인 싸움 장면 이면에 건설적인 토론 또한 존재했습니다, 저는 각 부처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국정 운영의 메커니즘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제가 관심을 가져왔던 사회적 문제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제화되고 다루어지는지를 직접 목격하며, 새로이 알게 된 사실 또한 많았습니다. 지금껏 관심 갖지 않았던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졌고, 시민의 감시가 왜 필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익숙했던 판결문 분석에서는 깊이를 더했고, 낯설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길렀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법률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공익에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바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내적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의롭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겠습니다.

○ 대전대학교　임 ○ 연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법률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해당 봉사활동이 처음이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아 초반에는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전 참여자들의 후기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활동의 난이도나 요구되는 준비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학과에 재학 중인 만큼 법률 분야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이를 통해 학문적

이해를 실무적 경험과 연결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에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다.'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통해 봉사활동의 목적, 진행 방식,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받았고, 특히 제공된 교재의 질이 매우 높아 활동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전공자들도 관심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정감사는 평소에 관심은 있었지만 직접 본격적으로 시청하거나 분석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실제 입법기관에서 다루는 쟁점과 정책 논의의 현장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등장하는 전문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 초반에는 정리해 가며 시청하였다.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점차 이해도가 높아졌고 이후 다른 국정감사를 들을 때 전체 내용의 흐름과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다보니 국정감사를 보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후반에는 재미를 붙일 수 있었다.

다만 올해 국정감사는 도중에 고성이 오가거나 파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회의가 중단되는 장면을 보면서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을 느꼈다. 동시에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의 발언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모두가 국정감사에 임하였으면 좋겠다.

판결문 조사연구 활동도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다. 형법총론과 각론을 모두 이수한 상태에서 판례를 분석하니 용어나 내용상의 흐름이 자연스러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상대적으로 유명한 김말자 씨혀 절단 사건을 다루어서 관련 정보도 찾기 수월하였다. 해당 판례를 리서치하며 여성 인권과 당시의 시대상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학기 중에 수업, 과제, 대외활동 등을 병행하며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던 거 같은 점이 아쉽다. 다음에는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더욱 여유 있는 일정 속에서 봉사활동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이번 봉사활동은 법학도로서 배움의 폭을 넓히고, 학문적 지식을 사회적 현실과 연결하는 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헌법 전공 시간에 교수님께서 매번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정감사를 보고 시사를 들으니 이해하기 쉬웠다. 앞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고려대학교　임 ○ 원

총 네 차례에 걸쳐 수행한 국정감사 보조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저의 학문적 지평을 법전에 갇힌 문자열에서 벗어나 살아 숨 쉬는 법치주의 시스템 전체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지점이며, 이 경험은 제가 법조인 또는 공직자로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보조활동에 참여하여,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민주적 견제 기능의 현실적 무게를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행안위 국감 자료를 보조하면서 국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행정시스템의 취약점과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을 수치 속에서 집요하게 추적했고, 이는 곧 법이 현실의 정책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시스템의 오류와 낭비를 감시하는 시민적 의무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특히 법사위 국감 자료를 다루면서는 사법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이 곧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이해했고, 권력 기관이 특혜 시비나 절차적 정당성 훼손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입법부가 얼마나 정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 국감 경험은 저에게 법이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거시적 이해와,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 비판점을 추출해내는 실무적 분석력을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감시와 비판의 경험을 토대로, 이어진 두 건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내려지는 미시적인 법리 해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과 종중 명의신탁 사건이라는 복잡한 민사 쟁점을 3개 심급에 걸쳐 해부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사법 시스템의 기술적 정밀함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유류분 사건 분석을 통해서는 상속 재산 분쟁이라는 첨예한 사적 영역에서 법적 정의가 어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대법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주채무자(피고)의 종국적 책임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획정하고, 피고의 보증 채무를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는 단순히 금액 계산을 넘어 재산을 상속에 앞서 편법적으로 처분하려는 의도를 법이 얼마나 철저하게 차단하고 가족 구성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려는지 그 정책적 의도와 법적 윤리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종중 명의신탁 사건 리서치에서는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민법의 가장 강력한 원칙이 종중 재산이라는 한국의 특수하고 역사적인 법률 관계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1심에서 종중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유기적 조직 존재 및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 해석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에서 3개 심급을 거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과거 판결 기록을 조사하고, 복잡한 내용을 판결요지 및 용어해설로 재가공하면서, 복잡한 법률 언어를 일반 시민의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이 법률가에게 필수적인 사회 기여의 통로임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영역을 아우르는 총 4회의 통합적 봉사경험은 저에게 법치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감시와 판단이라는 두 개의 창으로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감 활동을 통해 법과 정책의 사회적 영향력을,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리 해석의 개인적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 경험들은 저에게 법률 지식의 습득을 넘어,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 공정성, 그리고 비판적 분석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지시켰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복잡한 법률 용어를 해설하고 판결의 핵심을 전달하는 사법 투명성 제고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법률 정보가 소수의 전문가를 넘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법 접근성 향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 법학을 공부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이 거대한 법치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비전과 사명감을 갖게 되었으며, '왜 이러한 법이 존재하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평생 던지며 성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 동국대학교　장 ○ 산

2025년 가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단으로서 판결문 리서치와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임하며 저는 강의실에서 배운 사회과학적 이론들이 실제 법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혹은 때로 어떻게 괴리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법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넘어, 법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그 속에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소중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활동 기간 중 가장 인상깊었던 내용은 지속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4도9537)이었습니다. 원심은 반복된 범죄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여 단순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명백히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음을 직시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치료감호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법원은 아직까지도 현실과 괴리된 채 엄격한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대입하여 단죄하는 차가운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깊이 읽어 내려가며, 사법부가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파고드는 동시에,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익과 피고인의 재사회화라는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판결문들을 분석하는 과정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의 시선에서 법률 용어는 난해한 암호와도 같습니다. 저는

위의 사건을 리서치하며 얻은 교훈과 판결문을 분석하는 동안 복잡하게 얽힌 법적 관계와 쟁점, 그리고 법원이 고심 끝에 내놓은 판결의 이유를 저만의 언어로 재구성하고 해설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리모 친생자 관계나 성폭력 처벌법과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들을 일반 시민들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내는 과정은 충분히 보람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사회과학, 그 중에서도 범죄학과 교정학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그리고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이번 봉사활동은 저의 꿈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의 논리가 아무리 정연하고 아름답다 한들, 그것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언어로 남는다면 정의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법과 국민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법적 전문성과 사회적 감수성을 겸비하여, 법이 가진 차가운 이성이 따뜻한 세상의 언어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법과 국민이 서로 괴리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을 제 소명으로 삼고자 합니다.

○ 성균관대학교　장 ○ 빈

이번 가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지난 학기에 이어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모니터링, 국정감사 분석 등 다층적인 활동을 통해 법학적 통찰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판결문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법과 행정의 작동 원리를 현실 속에서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법학도로서의 시야를 한층 더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 수행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문 리서치는 매우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의 심문기일 속행의 적법성'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의 구체적 의미를 되새기게 한 사례였습니다. 대법원이 단순한 절차적 형식이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형사사법의 실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직접 추적하면서, 형사법이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입법부의 행정통제 기능과 정책 집행의 현실적 한계를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질의 과정을 분석하면서, 국회의 감시 기능이 단순한 비판이나 정치적 공방이 아닌 행정 책임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법이 행정을 통제하고 행정이 법을 구현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에서는 형사, 가사, 민사 등 다양한 재판을 직접 방청하면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정 분위기와 판사의 심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의 진술권 사이의 긴장 관계를 지켜보며, 공정한 절차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재판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공제금 사건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약관 해석의 법리와 계약자 보호 원칙을 중심으로 민사법적 판단구조를 탐구했습니다. 동일한 문언이라도 법원이 해석 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려하는 방식을 배우며, 법률문언 해석의 한계와 사법적 창조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활동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법의 현실을 배우는 학문적 실험의 장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판결문 속 법리는 현실 속 권리 보호와 연결되고, 국정감사 속 질의는 행정의 책임을 일깨우며, 법정의 한 장면은 사법정의의 긴 여정을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활동을 이어가며 법학적 전문성과 공공적 감수성을 함께 길러 법이 사회적 신뢰와 정의 실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강대학교　전 ○ 훈

비교적 늦게 법조인의 길을 꿈꾸기 시작한 학생으로서, 올해 봄학기에 진행했던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학교의 울타리 밖에서 법과 직접적으로 맞닿으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이번 가을학기에도 기꺼이 봉사활동에 신청해 활동하게 되었다.

가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법이 실제 국가 운영과 시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에는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헌법 번역이라는 활동에 집중했는데, 각각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법조인의 진로를 고민하는 나에게 큰 배움이 되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이다. 10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복지 제도와 의료 체계의 문제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점화되고 검토되는지를 직접 볼 수 있었다. 의원들의 질의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고,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대한 실제적 견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화, 돌봄, 의료 불균형처럼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직결된 사안이 논의되는 과정은 법과 제도가 현실의 요구와 연결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0월 30일에 모니터링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자치, 재난 대응, 치안 등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는 영역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조정되고 관리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과 지방 재정 운영의 문제는 법이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임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인명 피해와 관련된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법조인이 법적 해석뿐 아니라 제도 운영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방대한 기록 속에서 핵심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점검할 수 있었다.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과정 전반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공공 영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보다 넓어졌다.

한편, 튀르키예 헌법 번역 봉사는 성격이 다른 종류의 경험이었다. 번역한 구간은 헌법 제4~9쪽이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제도와 법적 개념이 많아 단순 번역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용어가 국내 법제에서 어떤 개념과 대응하는지, 국가의 역사적 경험이 조문 구성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했다. 이를 통해 법률 언어의 정확성이 왜 중요한지, 국제적 맥락에서 법을 해석하는 시각이 왜 필요하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은 법과 제도가 국가 운영의 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틀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감시되고 평가되는지를 직접 확인한 뜻깊은 경험이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법이 제도로 실현되는 순간을, 헌법 번역을 통해서는 법이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법률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고려대학교　정 ○ 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법적 문제와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필수 활동이었던 국회의원 국정모니터링 활동을 포함하여, 해외 법제 번역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며, 입법, 행정 등의 분야에서 현실 문제를 직접적으로 살펴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회의원 국정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하반기 정부 기관의 국정감사 기간에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봉사자는 자신이 관심 있는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선택하여 각 위원의 활동을 확인 및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관련 피감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 파악하여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정부의 현안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밀수 단속, 세수 확보, 무역 원활화 등 관세 행정 전반에 걸친 현안들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하면서 각

의원의 전문성과 충실성, 문제 접근 방향성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정 활동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었으며, 피감기관인 정부 기관의 답변을 확인하며 현재 국정 운영의 방향성 등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강의나 책에서 배우는 내용 이상으로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키울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법제 번역 봉사활동 또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평소 접하지 못했던 문서인 튀니지 헌법을 번역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접하지 못했던 문서였기에 더욱 흥미로웠고, 튀니지 헌법의 특징과 사회 배경 등을 익힐 수 있었기에 유익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내용적인 부분에서 배움뿐만 아니라 해외의 법학 용어, 문화 등을 폭넓게 알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는 차후 국제적인 법률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튼튼한 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외 법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국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었으며, 다양한 법체계의 존재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은 단순히 강의나 책에서 배우는 내용 이상으로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키울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입법, 행정 분야의 현실 문제를 직접적으로 살펴보고,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히 국정모니터링을 통해 현실 정치의 역동성을 체감하며,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이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해외 법제 번역은 낯선 법체계를 이해하려는 분석적 사고력을 길러주었습니다. 활동을 수행하며 작은 활동이나마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차후에도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사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소중한 배움과 경험을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 명지대학교　정 ○ 연

그저 법을 알아가는 게 흥미로워서 법학과에 진학했던 나는 막상 법학과에 들어가서 맞닥뜨려야 하는 수많은 법조문과 판례들,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로 서로 경쟁하는 동기들 속에서 흥미만으로는 쉽게 버틸 수 없는 곳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진로가 고민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자는 생각이 들어 잠시 학교를 휴학하였고 그 활동 중 하나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 활동이었다.

가장 첫 번째로 했던 활동은 세계 각국의 헌법 및 법률을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해석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뿐이어서 영어를 신청하였고 스웨덴 헌법을 번역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1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번역하였는데 10페이지가량의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도 꽤 있고 5줄이 넘어가면 해석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다. 그러다 10문장 정도 해석하였을 때쯤에는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도 많이 읽거나 눈으로 봤던 문체나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해석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스웨덴 헌법을 번역하기에 앞서,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및 정부 형태 등 스웨덴이라는 한 국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국가의 역사와 정부 형태가 해당 국가의 헌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꼈다.

이번 학기에는 국정 모니터링이 필수 활동이었다. 사실 내게 정치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냐 묻는다면 보통에서 조금 아래일 정도였기에 국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기에 앞서 걱정되고 긴장을 했었다. 관심이 있는 곳엔 열정이 앞서고 관심이 비교적 적은 곳엔 걱정과 우려가 앞서는 나였기에, 국정감사 피감기관을 선정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었다. 총 두 번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첫 번째 피감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였다.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가장 관심이 갔기에 해당 기관을 선택하였다. 해당 기관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된 질의내용은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및 노출 빈도, 마약류 약품 및 약물 처방의 용이성,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허위 광고 및 과장 광고 등이었다. 평소에도 사회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주제들이어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금방 놓였다. 내가 다니는 학교만 해도 정문과 후문에 각각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유인 전자담배 판매점이 있는데, 새로운 무인판매점이 들어올 때마다 학교 근처에 중고등학교가 많은데 과연 중고등학생의 접근이 어려울까? 무인판매점은 카드만 꽂으면 문이 열리는데 요즘 학생들은 부모님 카드를 예비용으로 하나씩 들고 다니기에 신용카드를 꽂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고 그에 따라 판매점 출입도 쉬울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전자담배 접근 용이성 관련 질의를 들을 때마다 크게 공감을 하고, 나도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며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나는 기능성 의약품이나 식품에 관심이 많지 않은 편이라 이번 모니터링 시간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생각보다 기능성 식품인 척 허위로 광고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일반 식품을 '의사의 허가를 받은', '관련 기관의 심사를 거친' 등의 문구를 앞세우며 광고를 하는 사이트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런 광고들은 보통 SNS에서 나도 모르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이 접근이 쉬우므로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두 번째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국정감사는 국토교통위원회 대상의 국정감사였다. 주요 질의내용은 갭투자 금지 대책 마련과 철도 운항 문제점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유독 언성을 높혀가며 질의하는 의원들이 많아 아쉬웠다.

세 번째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봉사 활동을 신청하기 전부터 가장 하고 싶었고 가장 기대되었던 활동이었는데 재판이 시간이 되는 날이 많지 않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방청을 하지 못해 아쉬웠다. 재판 방청을 총 두 번을 갔었다. 늘 뉴스나 드라마, 영화에서만 보던 법정이 내 눈앞에 들어온 순간 나도 모르게 위압감이 들었고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글과 문장으로만 접하던 사법절차를 비로소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었고 방청을 하며 느낀 점은 생각보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과 방청을 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날 방청한 사건 중 한 건은 60대 아들이 자신이 친부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존속살해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아들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고령의 아버지가 다른 질병이나 다른 물체에 부딪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출혈과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직접 찍은 동영상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가족들과 지내다가 중환자실에 있는 어머니, 병간호가 필요한 아버지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보살피면서 얻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았다. 실제 뉴스나 기사에서도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다 포기하고 싶어 살해를 저지르고 부모가 지적장애를 앓는 자녀를 양육하다 증세가 심해질 때 실제 뉴스나 기사에서도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다 포기하고 싶어 살해를 저지르고 부모가 지적장애를 앓는 자녀를 양육하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양육을 포기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많이 봤었다. 내가 방청한 사건도 비슷한 이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에 결코 씻을 수 없는 피를 묻힌 것이라,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국가 차원에서 부양 및 양육과 관련하여 지원 및 복지제도를 다양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재판이 끝이 났다. 두 번째 방청을 간 날에는 성폭력범죄 재판을 다수 보았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모두 전 애인이나 현 애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동시에 폭행을 가한 이들이었다. 이 역시 내가 언론에서 접하던 실제 사례들이었기에 방청에 어려움은 없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것은 단지 그 순간에 유형적인 피해가 보이지 않을 뿐,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무형적인 상처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크고 깊을 것이기에 사회에서는 엄격하게, 재판부에서는 엄중하게 판단하고 지켜보아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세 가지의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와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던 시간이었다고 느꼈다. 뉴스나 기사 등 언론에서 접하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고, 책을 통해서만 접하던 법률과 절차 등을 적용하는 재판과정을 직접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미디어에서만 접하던 상황을 직접 목격하니 신기할 따름이었고, 실제 몸소 겪어보니 책에서만 접할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공기가 도는 현장이었다. 실제 재판 현장은 단순히 글로 정리된 것보다 더 복잡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졌다. 재판을 방청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인 존속살해 재판에서 간병이나 부양, 양육 도중 사랑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후 살려달라 애원하는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한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이 동영상에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 침대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한 피고인의 진술 등은 그저 한순간에 이성을 잃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겪었을 심리적 압박감이 이해되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을 수십 년간 양육해 온 아버지라는 점을 생각하면 피고인은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사건이었다.

이번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을 통해 법률적 지식을 키우는 동시에 법률은 단순히 글자로 적혀져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기회였다.

○ 중앙대학교　정 ○ 민

저는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으로 국정감사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국정감사모니터링은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제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두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야당과 여당이 조화롭게 국정감사를 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 하에서 감정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일부 국회의원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 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차례도 잘 지키고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세 건의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세 판결문 모두 사실관계와 쟁점 정리 및 판사의 판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인상깊었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판결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보일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고 문단 구분이 안 되어 있어 방대한 양의 판결문을 읽기에 국민의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겠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근거 제시를 통해 판사의 판결을 글로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점은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국정감사와 판결문은 단순히 행정적인 문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소통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정감사는 현장에는 국회의원만 있지만, 실은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끼리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방송을 통해 국정감사 현장에 간접적으로라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적 과정이며, 이러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하에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의 경우에도 단순히 피고와 원고 등의 특정 사건의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문이 향후 유사 사안에 적용될 하나의 선례가 될 정도로 가치있는 공적 문서라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법원이 쟁점과 그 판단의 근거를 가능한 한 더 명확하게 제시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깊었던 점은 판결문 말미에 소수 판사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시선 및 국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단순히 판결을 제시하는 역할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책임을 알린다는 공적인 메시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및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저는 국가 행정에서 근거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논의 및 지적, 질의가 철저한 데이터와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만 하며, 판결문에서도 방대한 사실과 판례 및 논리적 판단 구조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공공기관의 기록과 판단 과정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여 국가기관에서 일하며 국민의 시선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근거 중심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되었기에 추후에 저도 법조인이 되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시선에서,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해당 근거를 통해 어느정도 수용 가능한 주장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저의 법조인의 꿈을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을 이해하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 고려대학교　정 ○ 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은 오리엔테이션 교육,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해외 자료 번역봉사이다. 전체 활동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공감시 체계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느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통해 공단의 설립 배경, 주요 업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에서는 봉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여러 의무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록 방식, 검토해야 할 항목들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었고, 이 과정에서 봉사자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활동 시작 전에 이러한 절차적 안내를 숙지함으로써 이후 모니터링 업무에서 요구되는 정확성과 형식적 기준을 미리 이해할 수 있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금융 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주 대상으로 금융시장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제도, 기업 지배구조, 디지털 금융 규제 등 경제 및 금융 분야의 정책이슈가 다루어졌다.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회의 진행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주제별로 구분하였다. 특히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나 감독기관 책임 문제처럼 정책적 파급력이 있는 논의를 보다 세부적으로 기록하였다. 의원 질의와 정부 기관의 답변을 비교하면서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물론 생산성 있는 논의도 많이 진행되었지만, 서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사안들이, 과도한 정치 진영 논리로 인해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안타까웠다. 행정안전위원회 모니터링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리체계, 각종 정책 수단 제고, 치안 유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 제도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회의에서는 여러 부동산 대책, 한강 개발 사업 관련 행정 분야의 이슈가 제기되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논의된 사안의 현실적 문제와 제도적 한계가 어떤 근거로 설명되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 요구 사항, 서울시의 대응 논리, 개선 필요성이 언급된 정책 항목 등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행정부 견제를 위한 절차라는 점뿐 아니라, 다양한 행정 정책의 집행 수준을 점검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관련 없는 정쟁을 진행하는 의원들이 있어 아쉬움을 느꼈다.

번역봉사 활동에서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및 터키 헌법을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번역 과정에서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문장 구조 조정에 신경을 기울였다. 국가별 법·제도 환경이나 국가 구조와 같은 맥락 요소가 포함된 문서는 직역보다 의미 중심의 번역이 요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문서의 목적과 내용적 특징을 파악한 뒤 이를 한국어 문장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전체 봉사활동을 수행한 결과 연맹의 공익 활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법률 활동이 일반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

인할 수 있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단순한 참여 활동이 아니라 정책 감시 체계의 일부로 기능하며, 모니터링 결과물은 정책 분석이나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논의의 기초 자료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봉사 역시 해외 헌법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데 필요한 자료 구축 과정의 일부로 기능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번 활동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분석·기록기반 업무의 실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정책·제도 관련 자료를 다룰 때 요구되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실무적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유사한 정보 분석 또는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할 때 본 활동을 통해 습득한 절차적 접근 방식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대학교　정 ○ 수

2025년도 가을학기 봉사활동 기간 동안 판결문 리서치와 국정감사 모니터링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과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처분 사건'은 행정법 수업에서 간략히 접했던 기억이 있어 이를 리서치 판례로 선택했고,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적용된 법리,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이라도, 그 이면에는 공익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결정이 있음을 깨달았으며 법원이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항과 법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권법과 친족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공유물 분할 사건' 판례를 함께 분석하며, 제가 배우는 법학이라는 학문이 실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적용되는지 직접 체감하는 유익한 경험을 했습니다. 솔직히 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스스로 판례를 찾아보고 분석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배운 내용이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와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임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앞으로도 법률신문의 기사와 대법원 판례를 꾸준히 찾아보며 시야를 넓히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다루었습니다. 이전에는 '국정감사'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언쟁을 벌이는 부정적인 장면만을 떠올렸지만,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국정감사의 본질과 중요성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긴 국정감사 분량에 압도되었으나, 모니터링을 진행할수록 국정감사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절차임을 깨달았으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던지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법안 제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현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있기에 행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부여된 임무를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헌법적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활동을 통해 시야가 전체적으로 넓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크게 체감하지 못했지만, 나 자신이 '법률을 적용받는 국민이자 주권자'임을 느꼈고 국가에서 법질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평상시 쉽게 하기 어려운 판결문 리서치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조직이 국민과 공동체를 위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주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활동밖에 하지 못했지만, 다음 학기에도 봉사활동에 지원하여 법정모니터링 등 다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정 ○ 린

이번 년도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국정감사 모니터링,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부 시절 법학을 배우며 법의 이론적인 부분을 알게 되었다면,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선 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관하여선, 사실 봉사활동이 아니면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관심있는 법사위의 국정감사 진행 과정을 보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서 국회의 부족한 점, 법안의 부족한 점 내지는 미비한 부분 등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유의미했다. 표면적으로 보기엔 단순한 정리 작업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며 국회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의 대리인으로써 얼마나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며 평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회의 활동을 감시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법정 모니터링에 관하여는, 재판부가 얼마나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으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꼼꼼히 살피고 유심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과 검사의 의견 차이와 대립이 있을 때 재판부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나가는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하며 해결해나가는지를 보다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내가 법관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까, 과연 저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어디까지가 진실한 사실이며 어느 정도의 진심으로 발언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볼 수 있었기에 법정 모니터링이 장래의 법관을 희망하는 스스로에게 매우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관하여는, 학부 시절 다양한 판례를 접했지만 시간적, 내용적 한계로 인해 주요 판결의 일부를 스치듯 지나가기만 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각 심급의 모든 판결문을 읽고 분석하며, 상급심에서 어떻게 원심 판결이 인용되고, 기각되는지를 모든 흐름을 따라가며 보다 자세히 볼 수 있었기에 매우 인상 깊다. 방대한 양의 판결문을 읽는다는 것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면 할수록 판례의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에 대한 대립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짚어가며 판결문을 읽을 수 있게 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정말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예전부터 판례는 늘 어렵다고 생각했다. 통상적인 일반인이 읽기엔 방대한 양, 매우 긴 한 문장, 어려운 법률용어 등이 판례를 접하는 데 큰 벽이 된다고 생각했었다. 판례에 대한 이런 고민 내지는 생각이 있었기에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읽기 편한 판결문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며 판례를 분석할 수 있었고 읽으면서 더 나은 방안 내지는 표현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사법 작용을 들여다봐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 단국대학교　정 ○ 원

일단 가을학기 필수활동인 국정감사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서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서 보게 된 첫날이 되었다. 시작하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집중해서 들으니 어떤 상황인지 모르던 것들도 결국에는 다 이해가 되었다. 최대한 예산집행과 관련정책에 대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초 집중하면서 모니터링을 했던 것 같다. 진정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정치의 한 부분에 참여하는거 같아서 새로운 기분이었다. 국정감사모니터링을 하고 난 후에는 내가 모니터링을 한 기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게 되었고 감사에서 말한 내용들을 이행시키고 있는지 들여다보게 되었다. 이게 바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순기능인 것 같아서 뿌듯했다.

법정모니터링도 처음 해보는 것이였는데 다른 봉사활동과는 다르게 법정에 가야하는 부담은 있었지만 나에게는 설렘이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꿈의 법정을 갈 기회가 생겨 좋았다. 나는 형사재판에 관심이 있어서 형사재판을 방청하고 싶어 갔는데 내 생각보다는 어디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지도 헷갈렸고 찾기 어려워 헤맸던 기억이 있다. 그

래서 결국 재판 중간에 들어가게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한 재판은 한 재판밖에 없었는데 엄청 충격적인 재판이었다. 일단 생각보다 방청객의 자리수가 정말 조금밖에 없어서 혼자 방청하기가 민망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던 수감자들이 정말 가까이에 있었고 수갑을 찬 채로 내 옆을 지나가기도 해서 무서운 느낌도 들었던 살면서 겪어보지 못할 색다른 경험이었다. 법정모니터링은 꼭 해보고 싶었던 활동인데 한번밖에 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기회가 된다면 더 해보고 싶은 활동이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는 처음에는 시간에 쫓겨서 시작하게 된 마음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내가 흥미를 많이 느낀 봉사활동이었다. 법정모니터링 때에는 변호사, 검사, 피고인, 증인을 보면서 재판을 따라가기에 바빠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볼 수 없었는데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그 아쉬움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또, 모니터링 때에는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재판을 들어야만해서 처음에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데에 시간을 썼어야 하는데 판결문 리서치는 원심판결, 2심, 대법원까지 모든 판결문을 볼 수 있고 사실관계부터 쟁점까지 전부 알 수 있으니 세세히 파악할 수 있어서도 흥미로웠다. 내가 하고 싶은 판결문을 선택해서 리서치 할 수 있어 더 재미있었던 것 같다.

최대한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신청해서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하지만 내가 지금껏 해본 적 없는 활동들을 세 가지나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고민이 많았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좀 확실해 진 거 같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행복했고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 같아서 즐거웠다. 단지 가을학기의 활동이 아닌 내 인생의 발판이 되어준 것 같아 감사하다.

○ 동국대학교　조 ○ 정

이번 학기 동안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국정감사 모니터링,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헌법 번역 등 다양한 법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여러 활동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기에 이번 학기에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새로운 과제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활동을 마무리하고 나니 폭넓은 경험을 했다는 점이 큰 배움과 의미로 남았습니다.특히 학기 중 예상치 못하게 개인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생기면서계획했던 만큼 꾸준하고 짜임새 있게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한계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성실히 참여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번 학기는 개인적으로도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감사 영상을 전부 시청하며 국회의 질의·답변 과정의 충실성, 위원장의 진행 방식, 피감기관의 태도 등을 시민의 시각에서 점검하였습니다. 단순히 정책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책임 추궁의 방식과 절차적 정당성이 어떻게 담보되는지를 직접 분석하면서 의회 감시의 중요성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에서는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을 처음 방문하면서 미디어를 통해서만 보던 장면을 눈앞에서 보게 된 신기함과 설렘이 컸습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자리마다 각자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분들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새삼스럽게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증거 제시 과정, 재판장의 질문이 사건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보면서 법이 현실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1심부터 3심까지 전 과정을 모두 비교·분석하며 동일한 사건임에도 각 재판부가 어떤 논점을 중시하고 어떤 판단 구조를 취하는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능력뿐 아니라 핵심 쟁점을 구조화하고 논리를 비교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된 활동이었습니다.

헌법 번역 활동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국제적 관점을 열어준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다른 나라의 정치구조나 헌정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에스와티니 헌법을 번역하며 그 역사·정치·경제적 배경을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에스와티니는 국왕과 모후가 권력을 공유하는 독특한 양두 정치 체계 등 특수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헌법을 분석하고 문맥을 이해하는 과정이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한 번역 작업을 넘어 법적 표현을 우리말 법률문체로 자연스럽게 옮기기 위한 해석과 판단이 필요했기에 언어적 감각과 비교법적 시각이 동시에 확장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제가 배우는 법이 실제로 사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감사장, 법정, 판결문, 헌법이라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해석되고 적용되는 과정을 경험하며, 법조인의 역할이 단순한 규범 해석자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조정해 나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비록 계획한 만큼 완벽하게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이 한 학기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사회가 만나는 현장을 꾸준히 경험하며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한 학기 동안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강대학교　조 ○ 원

작년에 가을학기 필수 활동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한 것이 보람찬 기억으로 남아 2025년에도 가을학기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에 필수 횟수인 2회밖에 채우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아 2회를 늘려서 4회의 국감 모니터링에 참여했는데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했지만, 학과수업에서 학문으로 접했던 정치와 우리현실에서 직접 일어나고 있는 정치와는 분명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생으로서는 현실정치를 눈으로 보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서 항상 아쉬움이 남았는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은 저의 그러한 학업욕구를 채워주는 감사한 활동이었습니다. 국정감사는 한해에 국정 전반에 대하여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감사로서 국회가 가지는 행정부 견제수단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정쟁의 수단, 때로는 행정부에 대한 따끔한 질책, 때로는 행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에 대한 찬사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이익에 따라 그 양상도 판이하게 나타납니다. 장장 3주, 그리고 상임위에 따라서는 하루에 9-10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국정감사를 보면서 현실 정치의 운영을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관심있는 분야에 따라서 상임위를 직접 결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도 저에게 참도움이 되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후에 로스쿨 진학을 꿈꾸고 있는데, 평소 환경법, 노동법, 여성법 등 다소 주류법에서는 벗어나는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수업을 신청할 때도 때때로 관련 수업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제가 평소에 관심있는 법에 대한 집행이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법이 집행되거나 수립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그저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치적 효능을 느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사실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어쩌면 제가 얻어가는 배움이 더 많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학기를 끝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커리어나 제가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이 되어야겠다는 포부를 다지며 봉사활동을 마무리합니다.

○ 연세대학교 최 ○ 준

이번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접해왔던 법과 행정의 영역을 실제 활동을 통해 경험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국정감사와 해외 헌법 번역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법이 사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국정감사 활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와 부처의 답변 과정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니 국정감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정책 및 여러 사회 이슈의 현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율 봉사 중 헌법 번역은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낯설었지만, 단순히 기계적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헌법의 역사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보며 능동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다양한 나라의 법에 대한 지식을 키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국가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고, 조문을 하나씩 분석해 나가면서 각 나라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보다 폭넓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현실에서 법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는 표현 하나를 설명할 때에도 그 나라의 배경, 사회적 맥락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했으며, 문장을 조금만 다르게 옮겨도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에 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은 평소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직접 해보며 법률 관련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와 방식을 점검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헌법 번역이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싶습니다.

○ 경북대학교 최 ○ 은

기부와 봉사활동의 차이점은 그 경험이 기여자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여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에 기여하는 효용의 총량이 같더라도 봉사활동은 계산되지 않는 무언가를 내게도 남긴다는 점에서 단순 기부와 구분된다. 지난 가을 학기 동안 진행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서 나는 뿌듯함 이상의 무엇을 얻어냈던 것 같다.

정치외교학과 재학생이자 법조인 지망생인 나는 자연스레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집중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가 무색하게도 입시 준비 시절부터 귀에 묻혀온 '국정감사'라는 단어의 실체를 나는 잘 몰랐고, 잘 모른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그래서 궁금해 본 적조차 없었다. 물론 사전적 정의와 그 사회적 역할을 대강 파악하고 있었으나 내게 국정감사란 교과서 속 단어, 그저 어디선가 일어나는 일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고서야 국정감사 진행시간을 확인했고 감사가 12시간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이걸 언제 다 모니터링하나'였다. 뒤이어 '의원들과 집행/사법부는 이걸 다 어떻게 준비하나'하는 의문이 찾아왔고, 최종적으로 '내가 정말 궁금했어야 하는 주제는 후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치를 배우고 있고 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으로서 나는 국정감사에 진작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그것이 성의이고 나아가 자질이었다. 이 깨달음이 봉사활동이 나에게 남긴 첫 번째 의미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나에 대한 나의 성실을 돌아보게 하였다.

두 번째 '의미'는 급하게 받아 쓴 모니터링 기록을 정리하던 중 발견할 수 있었다.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는 현대 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은 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꼽힌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확인하고 국민의 목소리로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실제로 '국민의' 것이었던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국정감사는 국민의 것이 아닌 정당들의 것이었다. 당을 가리지 않고 감사를 핑계 삼아 피감기관과는 가느다란 실로 연결된 것 같은 정쟁 주제를 가져오기 일쑤였고, 의원들은 짧은 발언 시간 안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했으며 무례를 과시했다. 일부 전문적이고 건설적인 질의응답도 오고 갔다. 하지만 그러한 기록을 보며 잠깐 흐뭇하다가도 그 대화가 국민에게 널리 공유될 가능성은 요원할 것 같다는 생각에 곧 다시 씁쓸했다. 어쩌면 의원들은 현재 제도 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정치학을 배우면서도 국정감사 진행 시간조차 몰랐던 나와 같은 시민들이 대다수라면, 의원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실속있는 감사 구성이 아니라 시민들의 무관심을 뚫고 그들의 뇌리에 인상을 심어줄 '장면' 연출이다. 정부를 정부답게 만드는 것이 의회의 감시라면, 의회를 의회답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감시일 것이다.

개강과 함께 시작한 봉사활동의 소감문을 쓰자니 벌써 반년이 지나갔다는 사실이 실감 난다. 시간과 공간상 제약으로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 특히 국정감사 현장에 직접 가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활동의 막바지에 이르러 자꾸만 아쉬웠던 점을 찾는 마음은 참여했던 활동들에서 그만큼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겨울학기에도 봉사를 이어갈 다짐을 굳힌다. 이번만큼, 아니 이번보다 더 성장하는 이 개월이 되기를 기대한다.

○ 동국대학교 하 ○ 진

평소 법을 책 속의 지식이 아닌 실생활의 영역에서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2025년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번 활동을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졌던 법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학기 동안 1) 법률 번역, 2) 판결문 리서치, 3) 국정감사 모니터링, 4)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1. 법률 번역: 헌법을 통해 국가를 이해하다

다소 생소한 국가들의 헌법을 번역하고 관련 자료를 리서치하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 작업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국가의 지리, 인종 구성, 역사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사회적 배경이 헌법의 제정과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 활동이 금지된 국가의 헌법 조항을 분석하며 그 법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필연성을 유추해보는 경험은, 법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2. 판결문 리서치: 법률적 사고의 흐름을 쫓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조사했습니다. 각 심급에서 당사자들이 다투는 핵심 쟁점과 이에 대한 법원의 논리적인 판단 과정을 따라가며, 법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결론에 도달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방대한 정보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서술된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법률적 글쓰기의 구조와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 국정감사 모니터링: 국민과 법을 잇는 의회의 역할

필수 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처음에는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피감사기관과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 과정을 살펴보면서, 제기된 문제가 국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와 제기된 쟁점들을 검토하며, 국정감사가 갖는 민주주의적 의의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4. 법정 모니터링: 법이 살아 숨 쉬는 현장감을 경험하다

난생처음 법원에 방문하여 느낀 법정 모니터링은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책으로만 접하던 법 조문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 방식과 사건 당사자들의 모습을 직접 보며, 법을 바라보는 저의 시야가 크게 확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특히, 외국인 피고인 사건에서 통역사가 증인석에 배석하여 진행되는 법정 통역을 직접 목격한 것은 매우 남다른 의미를 주었습니다. 현재 통번역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로서 말로만 듣던 법률 통번역의 전문성과 긴장감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저의 전문 분야가 법의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깊은 울

림을 받았습니다.

○ 동국대학교 홍 ○ 경

9월 초입에 시작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비로소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법학과 학사 과정을 마치고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법과 관련하여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하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시사 뉴스에서 익히 보고 듣던 이름이었기에 생경함은 없었지만,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은 매우 흥미로웠고 새로웠습니다. 짧다면 짧은 3개월간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법률소비자연맹이 비영리 시민단체라는 점이었습니다. 정치, 사법 가리지 않고 많은 분석과 평론의 대상으로 삼는 단체이니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일 것이라 생각했기에, 더욱 단체의 운영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하여 비록 짧은 기간 자원봉사자로 머무는 것이지만 저의 활동이 단체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학과 학사 과정 동안 재판 모니터링도 수회 경험해보았고, 모의 법정도 경험이 있으니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니터링단 활동이 매우 소상하고 본격적이어서 처음에는 진땀을 뺀 기억이 납니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 역시 학부 시절 여러 법원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었지만, 사건의 쟁점과 사실관계부터 판결 요지까지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어쩌면 늘 죄명과 형량에만 집중하며 재판을 방청했기에, 훗날 법정에서 일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꿈꾸면서도 그들의 역할은 살펴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모니터링 활동 시, 재판의 내용이 아니라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놀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정 모니터링을 해보니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법정 속 인물들의 역할과 기능이 보이면서 재판을 더욱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비전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 일거양득의 기회였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분야였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꽤나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법과 정치는 밀접한 분야이기에 늘 관심을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 요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지켜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잘 모니터링할 수 있을지 걱정하였으나, 모니터링을 하며 국정감사를 시청하고 평가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에 요약된 단편적인 뉴스가 아닌 국정감사 전 과정을 시청하며, 어떤 부분을 비판해야 하는지 어떠한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짚어내는 것이 깨어있는 국민이 되는 길임을 배웠고, 그것이 꿈꾸는 법조인이 되는 길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 쉽지 않은 활동이었지만, 들인 노력의 갑절로 배움을 얻었습니다. 다시금 자강불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저의 활동이 단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경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충북대학교 황 ○ 정

평소 법에 관심이 많아 법 과목을 다루는 교양을 수강하고, 법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접하곤 했었는데도 막상 나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아니다 보니, 법이라고 하면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었다. 이론적으로는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감이 부족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대학생 법·정치 봉사단으로 다양한 활동에 임하다 보니 법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가장 먼저 봉사활동을 수행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행정학과라는 과 특성상 전공 수업에서 많이 접하는 개념임에도, 한 번도 국정감사 영상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처음 국정감사 진행을 보면서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국정감사에서의 진행 방식, 질의와 답변의 흐름, 각 상임위의 분위기 등을 알 수 있어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부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현재 각 부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이 무엇인지 국정감사 영상을 시청하며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삼권분립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경험 덕분에 앞으로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현안이 무엇인지 찾고, 알아가는 과정에 전혀 막힘이 없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앞으로도 종종 국정감사를 찾아보며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같다.

두 번째로 수행한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서만 봐왔던 법정에 실제로는 처음 방문해 보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였고,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예상보다 방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법정에 재판을 방청하는 인원이 못해도 5명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보며 사람들이 법정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먼 존재라고 느껴졌다.

또한 하나의 사건이 짧게는 몇 분 이내로 매우 빠르게 끝날 수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1심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1심만 5년째 진행 중인 재판을 봤을 때인데, 재판까지 가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이 정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사건이 꽤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민사 재판의 경우 용어가 어려워 알아듣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를 통해 민법을 조금 더 공부해 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세 번째로 수행한 활동은 번역 봉사였는데 예상보다 난도가 높았던 것 같다. 헌법을 번역하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했다. 이처럼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만큼 활동을 끝내고 나서 얻는 뿌듯함이 가장 컸던 활동이었다. 번역 봉사를 하면서 단순히 문장을 번역하는 것을 넘어 법률적인 용어로 바꿔 쓰는 연습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어려운 표현도 많이 익힐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앞서 진행한 법정 모니터링 활동의 경험이 도움이 됐던 것 같다. 확실히 실제 재판 과정을 직접 보니까 판결문 속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읽어나갈 수 있었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진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전공과 교양 수업에서 쌓았던 기초적인 법 지식이 내용을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이를 통해 법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며, 법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식견을 넓힐 수 있었기에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다. 그렇기에 내년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망설임 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이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이어나갈 것이다.

※ 이하 법률연맹 홈페이지의 자원봉사 소감문을 참조

The Due(Tr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the Firmest Pillar of Good Government

공정한 사법은 민주국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미국 George Washington이 1789.9.28.초대 대통령 취임직후 초대 법무부장관에게 당부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임.
현재 뉴욕 번화가 Supreme Court에 각인 · 선언되어 있음